

2017년 고양시 청소년통계 구축 결과 보고서

2017. 12.



재단법인 고양시청소년재단
Goyang City Youth Foundation

차 례

제 1 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제 2 장 고양시 청소년통계	4
1. 고양시 청소년통계 체계	4
2. 고양시 청소년통계 일반 현황	9
제 3 장 2017년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12
1. 조사 개요	12
2. 조사 내용	13
3. 조사 대상	18
4. 조사 결과	20
5. 조사 결과 요약	91
제 4 장 결론	98
참고문헌	101
붙임) 2017년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설문지	102

표 차례

<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 체계	4
<표 2>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문항 구성	6
<표 3>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문항 구성	7
<표 4> 고양시 청소년 인구의 연령 및 성별 현황	9
<표 5> 고양시 구(區)별 청소년 인구 분포	10
<표 6> 고양시 각급학교 현황	10
<표 7> 고양시 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개소 수)	11
<표 8> 고양시 내 청소년 시설 현황(개소 수)	11
<표 9>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문항 체계	13
<표 10>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문항 구성 및 출처	14
<표 11>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	18
<표 12> 학교급, 지역(구) 및 성별에 따른 조사 대상 인원	18
<표 13> 조사 대상 특성	20
<표 14> 주관적 안녕감(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22
<표 15> 주관적 안녕감(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	23
<표 16> 주관적 안녕감(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	24
<표 17> 주관적 안녕감(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5
<표 18> 주관적 안녕감(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25
<표 19> 신체활동 여부	27
<표 20> 신체활동 시간(%)	28
<표 21> 아침식사(%)	29
<표 22> 점심식사(%)	29
<표 23> 저녁식사(%)	30
<표 24> 스트레스(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	31
<표 25> 스트레스(2주 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	32
<표 26> 자아존중감(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33
<표 27> 자아존중감(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33
<표 28> 자아존중감(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	34
<표 29> 흡연 및 음주 경험	35
<표 30> 문화예술활동 경험	36
<표 31> 참여 경로(%)	38
<표 32>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	39
<표 33> 하고 싶은 활동(1순위, %)	40
<표 34> 하고 싶은 활동(2순위, %)	41
<표 35>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42

<표 36> 시설 이용 경험(청소년수련시설, %)	42
<표 37> 시설 이용 경험(청소년상담복지센터, %)	43
<표 38> 시설 이용 경험(청소년카페, %)	43
<표 39> 시설 이용 경험(공공도서관, %)	44
<표 40> 시설 이용 경험(공연시설, %)	45
<표 41> 평일 여가시간(%)	45
<표 42> 생애 아르바이트 경험	46
<표 43>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47
<표 44> 부당노동행위 -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음(%)	48
<표 45> 부당노동행위 - 초과근무/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48
<표 46> 부당노동행위 -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킴(%)	49
<표 47> 부당노동행위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음(%)	49
<표 48> 부당노동행위 -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음(%)	50
<표 49> 부당노동행위 -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50
<표 50> 부당노동행위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음(%)	51
<표 51> 부당노동행위 -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음(%)	51
<표 52> 스마트폰 사용	52
<표 53> 스마트폰 의존 -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53
<표 54> 스마트폰 의존 -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53
<표 55> 스마트폰 의존 -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54
<표 56>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55
<표 57>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55
<표 58>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56
<표 59>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56
<표 60>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57
<표 61>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58
<표 62>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58
<표 63>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60
<표 64>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61
<표 65>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책, TV, 영화 등에 대한 대화(%)	62
<표 66>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62
<표 67>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여가 활동(%)	63
<표 68>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저녁식사(%)	64
<표 69>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	64
<표 70>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	65
<표 71> 부모 관심 -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66
<표 72> 부모 관심 -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66

<표 73> 가정생활 만족도(%)	67
<표 74> 가족관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67
<표 75> 가족관 -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68
<표 76> 가족관 - 맞벌이 시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69
<표 77>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69
<표 78> 학교생활 만족도 -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70
<표 79>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우리 의견을 잘 반영한다(%)	71
<표 80>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71
<표 81>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72
<표 82> 학교생활 만족도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	73
<표 83> 학교폭력 경험 -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74
<표 84> 학교폭력 경험 -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74
<표 85> 학교폭력 경험 - 따돌림을 당함(%)	75
<표 86> 학교폭력 경험 -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75
<표 87> 학교폭력 경험 - 협박을 당함(%)	76
<표 88> 학교폭력 경험 -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당함(%)	76
<표 89> 학교폭력 경험 - 강제적인 심부름(%)	77
<표 90> 인권교육 경험 - (%)	78
<표 91> 인권교육 도움 정도(%)	79
<표 92> 인권에 대한 태도 - 결정능력 부족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79
<표 93> 인권에 대한 태도 -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80
<표 94> 인권에 대한 태도 - 모임이나 조직이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80
<표 95> 인권에 대한 태도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81
<표 96> 인권에 대한 태도 - 가정형편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82
<표 97> 인권에 대한 태도 -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82
<표 98> 인권에 대한 태도 - 국내 거주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83
<표 99> 교우관계 -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84
<표 100> 교우관계 - 고민을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84
<표 101> 교우관계 -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85
<표 102> 교우관계 -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85
<표 103> 교우관계 -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86
<표 104> 교사와의 관계 -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86
<표 105> 교사와의 관계 - 고민을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87
<표 106> 교사와의 관계 -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88
<표 107> 교사와의 관계 -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88
<표 108> 교사와의 관계 -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89
<표 109> 유해업소 노출 - 등하굣길(%)	90

<표 110> 유해업소 노출 - 집 주변(%)	90
<표 111> 건강과 정서 영역 결과 요약	91
<표 112> 활동과 여가 영역 결과 요약	92
<표 113> 가정생활 영역 결과 요약	94
<표 114> 친구 및 학교생활 영역 결과 요약	95

제 1 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대상 집단의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다. 즉 정책이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집단의 규모를 파악함과 더불어 그들이 갖고 있는 특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은 해당 정책이나 프로그램이 당초 목적하는 바를 성취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된다. 따라서 대상 집단의 특성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에 기반하여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평가하는 것은 매우 과학적이면서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대부분의 공적인 영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의 청소년 수련활동 프로그램 인증 기준에서도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이나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여 활동의 필요성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경향에 발맞추어 청소년과 관련한 분야에서도 청소년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양한 자료가 수집되고 있다. 특히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은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를 개발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청소년 관련 업무의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에서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일정한 주기에 따라 정기적으로 시행하고 있고¹⁾, 그 결과를 정책의 수립 및 평가 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는 다양한 목적을 가진 전국 단위의 조사 자료를 수집하여 공개함으로써 일반 연구자는 물론 청소년 시설 종사자들도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청소년 관련 분야에서는 충분하지는 않다 하더라도 적지 않은 규모의 자료들이 수집되어 공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자료들이 갖고 있는 공통적인 특징은 전국 규모로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표본의 규모에 대한 제약으로 인해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자료 제공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및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경우 청소년의 생활과 관련한 다양한 영역에서의 조사 자료를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 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으나, 분류기준을 기초자치단체 수준으로 하여 자료를 제공하고 있지는 않고 있다. 또한 실제 조사

1) 여성가족부는 2016년에 기존의 청소년매체이용실태조사와 청소년유해환경접촉종합실태조사를 통합하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7년에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 가치관조사를 청소년종합실태조사로 통합·실시하였다.

자료에 접근할 수 있다 하더라도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유의미한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규모의 표본 크기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 수준에서 조사 자료를 살펴보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 수련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최전선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생활권 시설은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청소년수련관은 시·군·구 단위에 1개소 이상, 청소년문화의집은 읍·면·동 단위에 1개소 이상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²⁾. 따라서 청소년수련관과 청소년문화의집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들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을 계획하거나 청소년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전국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자료에 접근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읍·면·동 단위는 차치하고 시·군·구 수준의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의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시·군·구 단위에서 청소년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을 계획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단계에서 해당 지역 청소년들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자료를 직접 수집하는 것이 유일한 접근방법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을 중심으로 고양시라는 기초자치단체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과 관련한 실태를 알아볼 수 있는 통계체계를 구축하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수집된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하여 고양시 청소년들이 어떤 방식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고양시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의 3개 구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로서, 경기도에서는 도청소재지인 수원시 다음으로 인구 규모가 큰 지방자치단체이다³⁾. 도시 인구가 100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가 그리 많지 않은 상황에서 고양시 청소년들의 실태를 알아보기 위해 이에 필요한 통계자료를 수집하고 별도의 조사를 실시하는 것은 고양시의 청소년 정책 수립은 물론 고양시에 위치한 다양한 청소년 관련 기관들에서 활용할 수 있는 자료를 생산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작업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2)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운영)

3)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2017년 12월 31일 현재 수원시의 인구는 1,202,628명, 고양시는 1,041,983명, 용인시는 1,004,08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2.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양태를 알아보는데 필요한 통계체계를 구축하고 관련 자료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고양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통계를 구축하는데 필요한 객관적인 현황과 실태조사 전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즉 고양시 청소년통계의 체계, 고양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의 개요, 조사 방법, 표본 추출 방법 등 조사 수행과정 및 조사 표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향후 본 결과를 이용함에 있어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고하고자 한다.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보여줄 수 있는 조사문항을 선정하였다. 이를 위해 전국 단위에서 진행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내용을 검토하였으며, 그 밖에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조사’ 등 관련 조사 내용을 검토하였다. 특히 본 조사는 고양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조사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본 조사 결과 자체도 중요하지만 전국 단위의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고양시 청소년들의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기존의 조사 항목들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가능한 비교가 가능하도록 조사 문항을 구성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로 본 연구에서는 실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료를 분석하고 그 결과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따라서 SPSS for Windows(Ver.18)을 사용하여 전체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 및 교차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응답자들의 성별, 학교급(중학생과 고등학생), 거주지역(3개 구)을 주요 독립변수로 설정하고 모든 조사 문항들에 대하여 이 3개 변수별로 교차분석을 통한 χ^2 검증이나 t-검증 또는 F-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석 결과가 의미하는 바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아울러 비교가능한 전국 단위 조사결과를 함께 제시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결론 부분에서는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고양시의 청소년 통계를 발전시켜 나아가기 위해 지향하여야 할 방향이나 맥락에 대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 2 장 고양시 청소년통계

1. 고양시 청소년통계 체계

최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그 효과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향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흔히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다양한 형태로 집계되는 행정자료나 실태조사 결과 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청소년 분야에서도 이러한 흐름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다양한 형태의 지표 체계가 수립되거나 실태조사가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고양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알아보기 위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개발되어 온 대표적인 지표체계 및 관련 조사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지표체계를 어떠한 방식으로 고양시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대표적인 청소년 통계 체계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개발하여 제시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는 크게 생활환경, 청소년활동, 경제활동, 교육·진로, 건강, 안전, 관계, 주관적 웰빙, 참여의 9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영역의 세부 지표를 살펴보면, 다양한 행정자료 등을 통하여 수집되는 객관지표와 실태조사와 같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주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지표들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행복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서 각각의 지표들의 수준에 따라 청소년의 행복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지표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1〉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 체계

영역	하위 지표
1. 청소년 생활환경	주거환경인식(유해환경인지도, 주택만족도)
	주거기반(통학소요시간, 녹지접근성)
2. 청소년활동	여가활동상태(문화예술 활동 참여율, 문화여가 지출 비용, 동아리 활동 참여율, 문화예술시설 비율, 청소년활동시설 비율, 청소년지도사 비율)
	활동기반(놀이친구 접근성)

영역	하위 지표
	활동인식(여가활동 시간 만족도, 여가활동 공간 만족도, 여가활동 용돈 만족도)
3. 경제활동	소득/소비(가정경제만족도, 지역경제수준, 지니계수)
	복지(사회복지지출비율, 아동청소년 국민기초생활수급률)
	고용(경제활동참가율, 실업률)
4. 교육·진로	교육기회(학업중단율)
	교육의 조건과 과정(학교급별 학급당 학생 수, 학업성취도, 사교육비 지출액)
	교육효과(교육과정만족도, 진로교육 만족도)
5. 건강	건강상태(주관적 건강상태, 스트레스 정도, BMI, 질병 유무, 청소년 자살률)
	건강결정요인(아침식사율, 고카페인 이용량, 평균운동시간, 평균수면시간, 청소년흡연율, 청소년음주율, 인터넷중독률)
6. 안전	사고(지역사회 시설 안전도, 학교시설 안전도, 위기상황 대처능력, 청소년 교통사고사상률, 청소년 안전사고사상률)
	범죄(범죄안전도, 청소년 범죄 피해율, 아동학대 피해경험률, 학교 폭력 발생률, CCTV 구축 인지정도)
7. 관계	직접적 관계(가족관계만족도, 부모관계만족도, 교우관계만족도, 교사관계만족도, 일반신뢰도(부모, 친구, 교사, 이웃), 가족들과 대화 시간, 담임교사와 면담횟수, 방과 후 친구와 보내는 시간, 지역사회 관계만족도)
	간접적 관계(일반신뢰도: 우리나라, 사이버공간, 지역사회전문기관, 지방중앙정부)
8.주관적 웰빙	정서상태, 삶의 만족도, 유테모니아
9. 참여	참여결정요인(아동권리 인지, 징계소명권, 학칙개정권)
	관용성(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적 태도)
	사회참여(학생대표의 운영위 참여기회, 자원봉사 참여율)

출처 : 성윤숙·홍성효(2015) 90쪽의 내용을 재구성

이러한 지표들을 고양시 청소년통계를 구축하는데 활용함에 있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은 해당 지표들의 값을 고양시는 물론이고 고양시 내의 덕양구, 일산 동구 및 일산 서구의 수준에서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 있듯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발표하는 해당 지표값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에 있기 때문에 고양시 청소년통계에 활용하는 것은 그리 타당하지 않다. 물론 모든 지표가 고양시 수준에서 측정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가 전국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고양시 청소년통계로서의 기능을 적절히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표 1>에 나타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들을 검토해 보면, 앞서 언급한 것처럼 지표들이 객관지표와 주관지표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객관지표는 학업중단율, 학급당 학생 수 등과 같이 행정통계를 통해 집계되는 통계를 의미하는 것이고, 주관지표는 행정통계가 아닌 정책 대상들에게 직접 해당 의견을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변을 종합하여 산출하는 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주로 실태조사 등과 같이 설문을 통해 집계되는 통계를 의미한다.

청소년 분야에서 수행되고 있는 대표적인 실태조사는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이다. 여기서 이 조사들에 대해 검토하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는 우선 이 두 조사가 청소년 분야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는 조사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고양시 청소년통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이 조사에서 사용하는 문항을 활용할 경우에는 고양시와 전국 혹은 광역지방자치단체 수준과의 결과 비교가 가능하게 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의 상황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두 조사에서 사용되고 있는 문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문항 구성

구 분	조사 항목
건강	수면, 식습관, 운동, 스트레스, 정서(행복감, 자존감 등) 등
사회·문화	정책참여, 활동(문화/과학/모험/봉사/진로/교류 등)
가정생활 및 가족관	부모님과의 활동·대화, 가정생활만족도, 가족관(결혼 및 자녀출산의 필요성,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의식 등) 등
학교생활 및 방과 후	학교생활 만족도, 학업성취도, 만족도, 사교육 경험, 방과 후 활동(보호자 없는 빈도, 주요활동), 학업 중단 경험
진로·직업 및 직업관	진로교육·체험 경험, 희망 직업, 아르바이트 경험, 직업선택 기준, 취업여부, 직업훈련 경험 등
사회·국가관	사회의 공정성·신뢰도, 사회적 이슈 관심도, 다문화 수용성, 통일의식 등
응답자 특성	성별, 생년월, 교육 정도, 대학 재학 여부 등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크게 7개 영역을 중심으로 각 영역별로 청소년들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기존에 실시하던 청소년가치관조사와 통합함에 따라 가족관이나 직업관 등 청소년들의 가치관에 관한 문항들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더불어 청소년들의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접촉과 관련한

내용을 담고 있는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의 문항 구성 현황은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문항 구성

영역	구조	측정 항목
매체 영역	1. 청소년 이용 매체 파악	경험해 본 매체
		매체 이용 기기
	2. 이용 매체 중 유해 영상물/간행물 접촉 매체 파악 및 제도적 제한	성인용 영상물 접촉 경험 파악
		성인용 영상물 접촉 경로 파악/제도적 제한 작동 여부 파악
		성인용 영상물에 대한 자율적 통제 능력
		성인용 간행물 접촉 경험 파악
		성인용 간행물 접촉 경로 파악/제도적 제한 작동 여부 파악
		성인용 간행물에 대한 자율적 통제 능력
	3. 매체를 이용한 유해행위 및 제도적 제한	매체를 이용한 유해 행위/제도적 제한 작동 여부
	4. 현재 추진정책 점검	인터넷 사용 제한 프로그램 설치 여부
		매체이용 교육 경험
		야간시간대 온라인게임 이용 경험
약물 영역	1. 청소년약물 이용 실태 및 제도적 제한 작동 여부 파악	청소년 약물이용 경험
		청소년 유해약물 이용 경험 및 경로/제도적 제한 작동 여부
	2. 유해약물접촉에 대한 자율적 통제 수준	유해약물 접촉에 대한 자율적 통제 수준
	3.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 경험	유해약물에 대한 교육 경험 및 교육의 효과성
업소 영역	1. 유해업소 이용/근로 실태 및 제도 적 제한 작동 여부	유해업소 출입 경험 및 제도적 제한 작동 여부
		유해업소 근로 경험
	2. 금지업소 인지 여부 및 인지 경로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인지 여부 청소년출입금지업소 인지 경로
	3.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 노출 정도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 노출 정도
행위 영역	1. 폭력 피해 경험	학교폭력 피해 경험 및 유형
		학교폭력 피해 경험 장소
		학교폭력 가해자
		성폭력 피해 경험 및 유형
		성폭력 피해 경험 장소
		성폭력 가해자
	2. 폭력 피해에 대한 신고 경험	폭력 피해 신고 경험
		폭력 피해 미신고 이유
		폭력 피해 신고의 효과
	3. 폭력 피해에 대한 상담, 치료·치유 경험	폭력 피해 상담/치료 기관 이용 경험
		폭력 피해 상담, 치료·치유를 받은 기관의 종류
	4. 폭력 예방 교육 경험	폭력 예방 교육 경험 및 교육의 효과성

영역	구조	측정 항목
근로 보호 영역	1. 아르바이트 경험	최근의 아르바이트 경험
		아르바이트 목적
		아르바이트 업종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아르바이트 근로 기간 및 근로 시간
		임금수령 방식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부당행위 경험
	2.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근로권익에 대한 인식
	3. 노동인권교육 경험	노동인권교육 경험 여부
		노동인권교육 진행 방식
		노동인권교육의 효과성
배경	1. 사회인구학적 배경	성별
		연령
		가족구조
	2. 심리적 특성	자율성

이 두 조사는 청소년 정책과 관련하여 자주 인용되는 조사로서, 여기에 포함된 문항들은 청소년들의 일상 생활의 다양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활용도가 높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항들을 고양시 청소년들의 실태를 파악하는데 가능한 많이 적용하는 것이 좋겠지만, 조사의 실행 가능성이라는 면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가운데 가장 필요한 문항을 선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러한 조사 문항의 선정에 대해서는 다음 장의 일상생활 실태조사에 대한 설명에서 논의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토대로 고양시 청소년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관점을 정리하면, 우선 고양시 청소년통계는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객관지표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주관지표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특히 앞서 수차례 언급한 바와 같이 고양시 청소년통계임을 감안하여 전국이나 경기도 수준의 통계자료를 원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 및 고양시 관내 3개 구의 수준에서 집계 가능한 지표를 중심으로 고양시 청소년통계를 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가 이러한 지표를 구성하기 위해 처음 수행되는 연구임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선적으로 비교적 쉽게 접근 가능한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객관지표를 구성하고, 고양시 청소년의 일상생활 실태조사 실시를 통하여 집계할 수 있는 주관지표에 초점을 두고자 한다.

2. 고양시 청소년통계 일반 현황

고양시 청소년통계의 일반 현황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본적으로 고양시 청소년 인구, 학교 및 학생 현황, 고양시 청소년 관련 인프라 등에 대해 초점을 두고자 한다. 이러한 기초적인 자료에 초점을 두는 이유는 우선 청소년정책 및 프로그램과 관련한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데 있어 고려하여야 할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청소년 인구를 비롯한 청소년 관련 여건을 파악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현실적인 맥락에서 이러한 자료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 가능한 지표들임도 중요한 요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우선 고양시 청소년 인구의 연령 및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다음 <표 4>와 같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청소년 인구는 연령이 낮아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9세의 경우 1만 명에 미치지 않은 반면, 24세의 경우에는 1만 5천 명을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여자 100명당 남자의 수를 의미하는 성비는 연령이 낮을수록 100에 근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고양시 청소년 인구의 연령 및 성별 현황

연령	합계(명)	남자(명)	여자(명)	성비(%)
9세	9,991	5,075	4,916	103.2
10세	10,323	5,286	5,037	104.9
11세	9,561	4,891	4,670	104.7
12세	9,517	4,830	4,687	103.1
13세	10,596	5,403	5,193	104.0
14세	11,149	5,843	5,306	110.1
15세	11,071	5,728	5,343	107.2
16세	12,318	6,375	5,943	107.3
17세	14,488	7,502	6,986	107.4
18세	13,892	7,233	6,659	108.6
19세	14,168	7,314	6,854	106.7
20세	14,345	7,331	7,014	104.5
21세	14,925	7,878	7,047	111.8
22세	15,560	8,131	7,429	109.4
23세	15,900	8,240	7,660	107.6
24세	15,525	7,980	7,545	105.8
계	203,329	105,040	98,289	106.9

출처 :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고양시 청소년의 분포를 구(區)별로 살펴보면, 고양시 청소년의 39.2%가 덕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일산 서구에 31.9%, 일산 동구에 28.9%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고양시 구(區)별 청소년 인구 분포

구별	전체		성별(명)	
	명	%	남자	여자
덕양구	79,693	39.2	41,315	38,378
일산동구	58,863	28.9	30,291	28,572
일산서구	64,773	31.9	33,434	31,339
전체	203,329	100.0	105,040	98,289

출처 : 행정안전부(2017) 주민등록인구통계. <http://www.mois.go.kr/frt/sub/a05/ageStat/screen.do>

청소년들의 일상에서 학교는 매우 중요한 환경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양시의 초·중·고등학교 현황을 살펴보면 아래 <표 6>과 같다. 고양시에는 83개의 초등학교, 41개의 중학교, 36개의 고등학교가 있으며, 구별로 살펴보면 덕양구, 일산 서구, 일산 동구의 순으로 학교 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학생 수를 살펴보면, 초등학교 학생은 고양시에 58,636명이 있으며 이 가운데 41.1%에 해당하는 24,127명이 덕양구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수도 각각 30,165명과 19,365명으로 덕양구에 거주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표 6> 고양시 각급학교 현황

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학교수 (개)	학생수 (명)	학교수 (개)	학생수 (명)	학교수 (개)	학생수 (명)	학교수 (개)	학생수 (명)
덕양구	36	24,127	18	11,750	13	6,311	67	42,188
일산동구	23	15,787	10	8,339	11	6,797	44	30,923
일산서구	24	18,722	13	10,076	12	6,257	49	35,055
계	83	58,636	41	30,165	36	19,365	160	108,166

다음으로 고양시 내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우선 고양시에는 2개의 청소년수련관과 2개의 청소년문화의집이 설치되어 있으며, 2018년에 1개의 청소년수련관이 추가로 신설될 예정이다. 청소년수련원과 유스호스텔이 각각 2개소가 있으며, 청소년야영장도 1개소가 설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의 경우 일산 서구에 1개소가 설치되면, 청소년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군·구당 1개소의 청소년수련관을 확보하게 된다.

〈표 7〉 고양시 내 청소년 수련시설 현황(개소 수)

구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문화의집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유스 호스텔
덕양구	1	1	-	1	-
일산동구	1	-	2	-	2
일산서구	-	1	-	-	-
계	2	2	2	1	2

이와 더불어 고양시에 설치되어 있는 청소년 시설을 살펴보면 〈표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2개의 청소년 쉼터와 1개의 청소년진로센터, 1개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표 8〉 고양시 내 청소년 시설 현황(개소 수)

구	청소년 쉼터	청소년진로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덕양구	-	-	1
일산동구	1	1	-
일산서구	1	-	-
계	2	1	1

지금까지 고양시 청소년통계의 일반현황으로 고양시 관내의 청소년 인구, 학교 및 학생 현황, 청소년 수련시설 및 관련 시설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이러한 지표들을 살펴본 이유는 이러한 지표들이 청소년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통계자료가 된다는 것이 첫 번째이며, 그 다음으로 이러한 지표들이 비교적 용이하게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이러한 기본적인 지표들에 대해서만 살펴보았지만, 향후에는 고양시 기초자치단체 및 교육지원청 등과의 협조를 통해 고양시 청소년정책 담당 부서 현황, 학교밖 청소년 현황 등과 같이 보다 세부적인 지표들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신뢰성 있는 객관지표를 관리하는 주체가 주로 지방자치단체임을 감안하여 관련 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이 고양시 청소년통계 체계를 구축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한 전제조건이 됨을 감안하여 보다 체계적인 지표 구축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제 3 장 2017년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1. 조사 개요

본 조사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주관하는 것으로서 고양시 청소년통계를 구축하는 작업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는 고양시 청소년 관련 업무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고양시의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관련한 자료 수집의 필요성에 기초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본 연구는 이 설문조사의 실시 및 결과 분석을 위해 진행되었다.

본 조사는 기본적으로 조사 시점에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의 현황과 상태를 실증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함으로써 고양시는 물론 고양시청소년재단의 정책 수립과 고양시에 위치한 청소년 기관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평가하는 과정에서 기초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의 결과는 궁극적으로 고양시 청소년과 관련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본 조사의 조사 대상은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으로서 구체적으로는 고양시에 위치한 중학교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이 주요 조사 대상이며, 상세한 내용은 뒤에서 상술하고자 한다.

본 조사의 현장 실사는 2017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급 담임교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응답하는 집단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조사의 실시를 위하여 조사 문항의 개발은 고양시청소년재단과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조사 실시 및 자료입력은 고양시청소년재단이 담당하였다. 조사 자료의 분석 및 결과보고서 작성은 백석대학교 산학협력단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2. 조사 내용

고양시청소년재단이 지향하는 청소년정책의 핵심은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고양시청소년재단이 구축하고자 하는 청소년 일상생활 지표체계도 청소년의 개인적 특성과 청소년을 둘러싼 직접적인 환경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실태조사도 고양시 청소년정책 및 일상생활 지표체계와 궤를 같이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맥락에서 본 조사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특징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하는 전문가 또는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건강 및 정서와 관련한 항목을 중심으로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미시환경(micro-environments)에 초점을 두어 가정, 교우관계, 학교생활 등에 관한 항목을 중심으로 조사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이러한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조사 체계를 아래의 표와 같이 설정하였다.

<표 9>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문항 체계

영역	하위 영역	지표
1. 개인특성	1) 건강	수면시간, 운동습관, 식습관, 흡연 경험, 음주 경험
	2) 정서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삶의 만족도
	3) 활동 및 여가	청소년활동 참여 경험, 수련시설 및 상담시설 이용 경험, 여가시간 및 만족도, 스마트폰 과의존 정도
	4) 경제활동	아르바이트 경험, 진로성숙도
2. 가정	1) 부모	부모와의 관계, 부모와 함께하는 활동
	2) 가족	가족관, 가족관계 만족도
	3) 사교육	사교육 여부 및 시간
3. 학교	1) 학교	교사와의 관계, 학교생활 만족도, 학교폭력 피해 경험, 인권교육 경험 및 만족도
	2) 친구	친구와의 관계
4. 지역사회	1) 안전	학대·방임 경험,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 노출 정도
	2) 참여	아동권리 인지 정도, 소수집단에 대한 관용성

본 조사가 고양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이기 때문에 고양시 청소년의 현황은 물론 그리고 고양시 내의 3개 구별로 조사 항목에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지를 확인하는 것이 본 조사의 근본 목적이다. 그러나 본 조사의 결과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하기 위해서는 고양시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 결과와 전국 수준 혹은 광역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조사 결과와의 비교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고양시 청소년들이 전국의 청소년들에 비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혹은 서울이나 경기도 등 광역자치단체 수준의 청소년들과 비교해서 얼마나 비슷하고 얼마나 차이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는 것도 고양시 청소년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정에서는 매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결국 전국 단위 혹은 광역자치단체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조사 문항과의 비교가능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이는 곧 전국 단위 조사에서 사용하는 조사 문항을 최대한 동일하게 사용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청 승인통계인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청소년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등에서 사용된 문항을 중심으로 조사 문항을 구성하였으며, 조사표에 포함된 조사 문항들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표 10>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문항 구성 및 출처

영역	세부영역		출처
건강 및 정서	주관적 안녕감	1-1. 어제 행복한 정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2. 어제 근심(걱정)한 정도	
		1-3. 어제 우울한 정도	
		1-4. 요즘 삶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1-5. 요즘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평가	
	수면시간	2-1. 평일 수면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2-2. 주말 수면시간	
	운동여부 및 시간	3-1. 운동 또는 야외 신체활동 여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3-2. 활동시간	
	식습관	4-1.~4-3. 식사 여부(아침, 점심, 저녁)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스트레스	5-1. 일상생활 중 스트레스	청소년종합실태조사
		5-2. 2주 이상 심한 슬픔이나 절망감	
	자아존중 감	6-1.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	청소년종합실태조사
		6-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	
		6-3.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	
	흡연 및 음주경험	7-1. 흡연 여부 및 정도	아동·청소년패널조사
		7-2. 음주 여부 및 정도	

영역	세부영역		출처
활동 및 여가	청소년활동 경험	8-1). 문화예술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8-2). 과학정보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3). 모험개척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4). 자원봉사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5). 직업진로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6). 국제교류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7). 건강보건의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8). 자기계발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9). 환경보존활동 참여 여부 및 횟수	
		8-1. 활동 참여 경로	
		8-2. 활동 만족도	
		8-3. 향후 하고 싶은 활동	
	청소년 단체활동 경험	9-1.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참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9-2.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참여	
		9-3. 기타 단체나 동아리 참여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10-1. 청소년수련관, 문화의집, 수련원 등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0-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10-3. 청소년카페	
		10-4. 공공도서관	
		10-5. 공연 시설	
	여가시간	11. 평일 여가시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아르바이트 경험	12. 생애 아르바이트 경험	청소년종합실태조사
		12-1.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12-2-1. 임금을 적게 받음	
		12-2-2. 초과(휴일)근무 임금 미지급	
		12-2-3.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킴	
		12-2-4. 아르바이트 중 다친 적이 있음	
		12-2-5.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음	
		12-2-6.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12-2-7. 성희롱·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음	
		12-2-8. 부당한 손해배상청구를 받은 적이 있음	
	스마트폰 이용 및 과의존	13. 스마트폰 사용 여부	인터넷(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
		13-1.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	
		13-2. 이용시간 조절이 어려움	
		13-3. 이용시간 지키는 것이 어려움	
		13-4.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려움	
		13-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음	
		13-6. 이용 충동을 강하게 느낌	
		13-7.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음	
		13-8.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음	

영역	세부영역		출처
		13-9.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을 경험 13-10. 학업수행에 어려움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14-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14-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14-3.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14-4.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한 대화 14-5. 여가 활동 14-6. 저녁 식사	청소년종합실태조사
	부모님과 의 관계	15-1. 아버지 15-2. 어머니 15-3. 양육자 16-1. 집에 늦게 와도 관심이 없음 16-2. 아파도 그냥 내버려둔 적이 있음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정생활 만족도	17. 현재 가정생활에 대한 만족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가족관	18-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함 18-2. 결혼은 하더라도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음 18-3. 맞벌이 경우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 하는 것은 당연함	청소년종합실태조사
	사교육	19-1.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음 19-2. 사교육 시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교생활 만족도	20-1. 수업시간이 재미있음 20-2. 학교는 학생의견을 잘 반영함 20-3.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임 20-4. 교칙이 엄격함 20-5.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움	청소년종합실태조사
	학교폭력 경험	21-1.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21-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21-3. 따돌림을 당함 21-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21-5. 협박을 당함 21-6.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당함 21-7. 강제적인 심부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인권 교육 경험	22-1. 인권교육 경험 22-2. 인권교육 장소 22-3. 인권교육 도움 정도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영역	세부영역		출처
	인권에 대한 태도	23-1. 부모님/선생님 의견을 따라야 함 23-2. 사회정치문제 참여 필요 23-3. 모임/조직이 문제해결에 도움 23-4. 의사표현의 권리를 가져야 함 23-5. 가정형편으로 차별하면 안 됨 23-6. 남녀는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함 23-7. 모든 국민은 평등한 교육기회를 가져야 함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교우관계	24-1.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음 24-2. 문제를 기꺼이 들어줄 것임 24-3.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음 24-4.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줌 24-5. 격려해 주고 용서해 줄 것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
	교사와의 관계	25-1.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음 25-2. 문제를 기꺼이 들어줄 것임 25-3.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음 25-4.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줌 25-5. 격려해 주고 용서해 줄 것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
	생활환경 내 유해요소 노출	26-1. 등하굣길 26-2. 집 주변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 환경 실태조사
	응답자특성	D1. 성별 D2. 생년월 D3. 가족상황 D4. 학교급 및 학년 D5. 학업성적 D6. 가정형편	-

3. 조사 대상

본 연구의 조사 대상은 기본적으로 조사 시점에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조사 여건을 고려하여 본 조사에서는 그 대상을 2017년 9월 현재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64,903명의 학생으로 한정하였으며, 자세한 구성은 아래 표와 같다.

〈표 11〉 고양시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 현황

구분		남		여		계	
중학생	서구	5,219	0.08	4,870	0.08	10,079	0.16
	동구	4,310	0.07	4,029	0.06	8,339	0.13
	덕양구	5,881	0.09	5,502	0.08	11,383	0.18
	계	15,410	0.24	14,401	0.22	29,801	0.46
고등학생	서구	6,257	0.10	6,189	0.10	12,446	0.19
	동구	5,424	0.08	5,247	0.08	10,671	0.16
	덕양구	6,311	0.10	5,674	0.09	11,985	0.18
	계	17,992	0.28	17,110	0.26	35,102	0.54
합계		33,402	0.51	31,511	0.49	64,903	1.00

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가용예산을 고려하여 조사 규모를 모집단의 약 2% 정도인 1,300명으로 설정하고 이에 따라 성별, 학교급별 및 지역별 조사 대상 인원을 아래와 같이 산출하였다.

〈표 12〉 학교급, 지역(구) 및 성별에 따른 조사 대상 인원

구분		남	여	계
중학생	서구	105	98	202
	동구	86	81	167
	덕양구	118	110	228
	계	309	288	597
고등학생	서구	125	124	249
	동구	109	105	214
	덕양구	126	114	240
	계	360	343	703
합계		669	631	1,300

특히 고등학생의 경우 남자 고등학생 가운데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은 12%, 여학생은 13%이며, 특목고의 경우에는 각각 6%, 13%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특성화고에 재학 중인 학생들을 일정 부분 반영할 필요가 있어 특성화고가 상대적으로 많이 소재하고 있는 일산서구에서 특성화고를 선정하여 조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특수목적고등학교는 고양예술고, 고양국제고, 저현고, 고양외고 등 성격이 상이한 경향을 보이며, 재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에 매우 비협조적인 경향을 보이므로, 본 조사에서는 특수목적고(자립고 포함)에 대한 별도의 고려는 하지 않았다.

조사 대상의 선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1,300명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지역별, 학교급별, 성별 할당 수치를 최대한 충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기본적으로 할당표집(quota sampling) 방법을 사용하여 성별, 학교급별 및 지역별 조사 대상 인원 할당표를 기본으로 각 셀의 수치만큼의 대상에 대해 조사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3개 구에서 각각 1개 중학교와 1개 고등학교에서 조사를 실시하였고, 특히 특성화고의 경우에는 일산 서구에 소재하고 있는 1개 고등학교를 추가로 조사에 포함하였다.

본 조사의 현장 실사는 2017년 11월 중순부터 12월 초까지 약 3주간 진행되었으며, 조사 방법은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학급 담임교사를 통하여 설문지를 배부하고, 학생들이 응답하는 집단조사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4. 조사 결과

1) 응답자 특성

고양시에 소재한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 가운데 본 조사에 참여한 청소년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1,364명 가운데 남학생이 653명으로 47.9%이며, 여학생은 711명으로 52.1%인 것으로 나타나 조사 표본에 여학생의 비율이 조금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39.3%이고, 일산 서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의 비율이 31%였으며, 덕양구에 소재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29.7%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일산 동구의 학생 비율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으나, 전반적인 비율은 각 지역별로 1/3 수준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급에 따른 구성을 살펴보면, 우선 중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50.4%인 반면,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의 비율이 49.6%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조사 표본을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3> 조사 대상 특성

구 분		N	%
성별	남	653	47.9
	여	711	52.1
	소계	1,364	100.0
지역	일산 동구	545	39.3
	일산 서구	430	31.0
	덕양구	411	29.7
	소계	1,386	100.0
학교급	중학교	686	50.4
	고등학교	674	49.6
	소계	1,386	100.0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학업성적	1,366	3.10	1.03
가정 경제적 수준	1,363	4.62	1.06

조사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학업성적을 5점 척도(1= ‘매우 못하는 수준’에서 5= ‘매우 잘하는 수준’)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이에 대한 평균 점수가 3.1점으로 보통 수준에 해당하는 점수를 보였으며, 점수의 분포도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형태를 보였다. 또한 가정의 경제적 수준에 대해 7점 척도(1= ‘매우 못산다’에

서 7= ‘매우 잘 산다’)로 평가하도록 하였는데, 여기에서도 평균값이 4.62점으로 ‘보통’ 수준을 약간 상회하고 있었으며, 분포의 형태도 정규분포에 근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설문지는 건강 및 정서 영역, 활동 및 여가 영역, 가정생활 영역, 친구 및 학교생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영역별로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각 문항에 대한 응답결과를 응답자 전체 수준에서 살펴봄은 물론 응답자들의 성별, 학교 소재 지역, 학교급으로 구분하여 응답 분포를 살펴보고, 사용되는 변수의 특성에 따라 t-검증이나 F-검증 또는 χ^2 검증 등을 실시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도 아울러 검토하였다.

2) 건강 및 정서

(1) 주관적 안녕감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살펴보기 위하여 모두 5개 문항의 질문을 포함하였다. 이 5개의 문항은 모두 10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1점이 해당 질문에 대한 가장 낮은 수준을 의미하며 10점이 가장 높은 수준 혹은 상태를 의미한다. 먼저 어제 얼마나 행복했다고 생각했는지에 대한 응답 결과가 <표 14>에 제시되어 있다.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은 어제 얼마나 행복했는지에 대한 질문에서 평균 6.70점을 보임으로써 보통 수준보다는 약간 높은 점수로서 비교적 행복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와 비교해보면 전국 평균에 비해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⁴⁾.

<표 14> 주관적 안녕감(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고양시	1,380	6.70	2.39	-
전국	-	7.1	-	-
남	650	6.94	2.35	3.37**
여	711	6.50	2.40	
일산 동구 ^a	543	6.55	2.31	5.73** (b>a, c)
일산 서구 ^b	428	7.03	2.40	
덕양구 ^c	409	6.57	2.46	
중학생	685	7.05	2.35	5.29***
고등학생	673	6.37	2.36	

* p < .05, ** p < .01, *** p < .001

남학생과 여학생을 비교해 보면, 남학생들의 행복감에 대한 평균값이 6.94점인 반면, 여학생들은 6.50점으로 남학생들보다 낮은 수준의 행복감을 보였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산 서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하는 청소년들의 행복감이 7.03점인 반면, 일산 동구나 덕양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행복감은 각각 6.55, 6.57저

4) 표의 각주에 별도의 설명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동일 문항에 대한 응답값을 사용하였다. 다만 두 조사 결과를 비교함에 있어 청소년종합실태조사는 확률표집을 사용한 반면, 본 조사는 할당표집을 중심으로 표본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두 조사 수치 간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두 조사 수치 간에 나타나는 차이에 대한 일반적인 논의만을 제시하는데 국한하였으며, 통계적인 유의도 검증은 실시하지 않았다.

점으로 나타났으며, 지역에 따른 행복감 수준의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 행복감의 평균값이 7.05점인 반면, 고등학생은 6.37점으로 중학생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어제 어느 정도 근심이나 걱정을 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들의 평균 응답값은 5.68점으로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5> 참조). 특히 본 문항이 1점부터 10점까지의 척도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5.68점은 거의 중앙에 가까운 점수이며, 이는 근심 또는 걱정한 정도가 적지도 않고 많지도 않은 보통 수준임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그러나 전국 단위의 수치와 비교해 볼 때, 고양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근심 또는 걱정의 정도가 전국 청소년들의 평균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주관적 안녕감(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고양시	1,379	5.68	2.43	-
전국	-	3.2	-	-
남	650	5.37	2.50	-4.55***
여	710	5.97	2.31	
일산 동구 ^a	543	5.77	2.41	.62
일산 서구 ^b	428	5.61	2.46	
덕양구 ^c	408	5.63	2.41	
중학생	685	5.28	2.49	-6.11***
고등학생	672	6.07	2.29	

* $p < .05$, ** $p < .01$, *** $p < .001$

근심 또는 걱정한 수준에 대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행복감의 경우와 달리 여학생들의 근심 정도가 5.97점으로 남학생들의 5.37점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들의 근심 수준이 5.28점인 반면 고등학생의 근심수준은 6.07점으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근심이나 걱정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로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는가에 대한 질문에서 고양시 청소년들은 평균 4.41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우울 정도가 보통 수준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이 문항의 척도에서 1이 의미하는 바가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이므로, 4.41점은 보통 이하의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우울함을 적게 느끼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표 16> 참조). 그러나 전국을 단위로 조사된 수치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앞의 근심이나 걱정과 관련한 변수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양시 청소년들의 우울감 경험 정도가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울감에 있어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근심이나 걱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의 우울 정도가 남학생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학생들의 우울 수준은 평균 4.75점인 반면, 남학생들은 4.02점이었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에 따른 차이는 주목할 만한 수준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도 앞의 근심(걱정)의 경우처럼 중학생들이 4.01점인 반면, 고등학생은 4.80점으로 고등학생들의 우울 정도가 높았으며, 두 집단 간에 나타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16> 주관적 안녕감(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고양시	1,380	4.41	2.47	-
전국	-	2.5	-	-
남	650	4.02	2.42	-5.56***
여	711	4.75	2.46	
일산 동구 ^a	543	4.47	2.43	1.70
일산 서구 ^b	428	4.23	2.54	
덕양구 ^c	409	4.51	2.45	
중학생	685	4.01	2.49	-5.98***
고등학생	673	4.80	2.38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최근 자신의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에 대한 문항에서 고양시 청소년들은 평균 6.50점으로 응답함으로써 보통 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양시 청소년들은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그리 높은 편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전국 평균(6.8점)과 그리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표 17> 참조).

성별에 따른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은 평균 6.76점의 만족도를 보인 반면, 여학생들은 6.27점으로 남학생들보다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 수준이 낮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만족도 수준을 살펴보면, 일산 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

는 6.32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반면에 일산 서구의 청소년들은 6.75점을 보임으로써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덕양구 청소년들은 일산 동구 청소년들에 가까운 6.48점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서 나타났으며, 덕양구 청소년들의 만족도는 두 집단과 통계적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7> 주관적 안녕감(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고양시	1,375	6.50	2.17	-
전국	-	6.8	-	-
남	646	6.76	2.20	4.18***
여	710	6.27	2.11	
일산 동구 ^a	540	6.32	2.20	4.88** (b>a)
일산 서구 ^b	428	6.75	2.15	
덕양구 ^c	407	6.48	2.12	
중학생	681	6.86	2.25	6.19***
고등학생	672	6.14	2.01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고양시 청소년의 경우 평균 6.34점으로 보통 수준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18> 참조). 이 수치는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감에 대한 문항에서 보고된 6.50보다는 약간 낮은 수치로서 삶에 대한 만족감에 비해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조금 낮음을 알 수 있다.

<표 18> 주관적 안녕감(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구 분	N	평균	표준편차	t / F
고양시	1,373	6.34	2.23	-
전국	-	6.9	-	-
남	645	6.49	2.30	2.12*
여	709	6.23	2.15	
일산 동구 ^a	542	6.08	2.29	7.22** (b>a)
일산 서구 ^b	426	6.62	2.18	
덕양구 ^c	405	6.41	2.18	
중학생	681	6.58	2.31	3.78***
고등학생	670	6.13	2.11	

* p < .05, ** p < .01, *** p < .001

또한 전국 단위의 평균값(6.9점)과 비교해 보면, 고양시 청소년들이 느끼는 학업의 가치에 대한 정도가 전국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평균값보다 약간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여학생 보다는 남학생이 자신이 하는 일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정도가 높았으며, 이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산 서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의 경우가 6.6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일산 동구의 학교 학생들은 6.08점으로 가장 낮았으며, 이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자신의 일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높았으며, 이러한 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은 행복감,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의 측면에서 보통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근심이나 걱정을 한 정도, 우울감의 측면에서는 보통보다 약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전국 단위의 수치와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측면(행복감, 삶의 만족도, 하는 일의 가치에 대한 평가)은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낮은 수준인 반면 부정적인 측면(근심 또는 걱정, 우울감)은 전국 평균에 비해 조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의 주관적 행복감은 전국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5개 문항에서 모두 남학생들은 여학생들에 비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근심이나 걱정을 더 적게 하였으며, 우울감 수준은 더 낮았으며, 삶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감이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의 가치에 대해서는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교에서도 동일한 유형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주관적 안녕감의 5개 측면에서 더 긍정적인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2) 운동

본 조사에서는 지난 1주일 동안 운동이나 야외 신체활동을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19>에 나타난 바와 같다⁵⁾. 우선 전체 응답자 1,386명 가운데 64.9%가 긍정 응답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의 약 2/3

5) 운동에 대한 질문과 더불어 수면시간에 대하여도 질문하였는데, 취침시간과 기상시간을 기입하도록 하였으나, 응답을 적절히 하지 않은 사례가 많아 실질적인 분석이 불가능하여 구체적인 논의는 생략하였다.

정도는 지난 1주일 동안 어떤 형태로든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수치는 56.7%로 나타난 전국 평균값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표 19> 신체활동 여부

구 분	N	있다(%)	χ^2
고양시	1,386	64.9	-
전국	-	56.7	-
남	595	80.3	37.55***
여	631	64.7	
일산 동구	465	68.4	10.28**
일산 서구	404	78.0	
덕양구	375	71.2	
중학생	659	75.9	9.48**
고등학생	565	68.0	

* $p < .05$, ** $p < .01$, *** $p < .001$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의 80.3%가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64.7%만이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신체활동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가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 소재 학교에 다니는 청소년들의 경우 68.4%가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일산 서구에서는 78%, 덕양구에서는 71.2%가 신체활동을 한 것으로 응답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 지역적인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의 경우에는 75.9%가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였다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68%에 그쳐 상대적으로 중학생들이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여학생과 고등학생들의 경우 상대적으로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신체활동을 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활동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를 질문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살펴보면, 일주일에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한 시간이 2시간 이하인 경우가 45% 정도였으며, 5시간 이상 활동을 한 경우도 28.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0> 참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의 운동시간이 아예 적은 편이거나 아니면 아예 많은 편으로 나타나는 등 양극화되는 경향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5시간 이상 활동을 하는 비율이 가장 높은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2시간 정도인 비율이 30%, 1시간 정도인 비율이 2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중학생

의 경우 5시간 이상인 경우가 34.1%로 가장 많았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시간 이하인 경우가 57.2%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동이나 신체활동을 하는지의 여부와 활동시간은 남학생과 중학생의 경험률이 더 높고 활동시간도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20> 신체활동 시간(%)

구 분	N(명)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상	χ^2
고양시	893	20.9	24.1	15.8	10.9	28.3	-
남	476	16.2	19.1	17.6	12.2	34.9	42.77***
여	403	26.6	30.0	14.1	9.4	19.9	
일산 동구	314	22.0	24.5	16.2	10.8	26.4	14.28
일산 서구	314	18.2	22.3	16.2	15.0	28.3	
덕양구	265	23.0	25.7	14.7	6.0	30.0	
중학생	496	18.3	17.5	15.7	14.3	34.1	53.18***
고등학생	381	24.4	32.8	16.5	6.0	20.2	

* $p < .05$, ** $p < .01$, *** $p < .001$

(3) 식습관

본 조사는 하루 식사 여부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고 있다. 우선 아침 식사의 경우 고양시 청소년들 가운데 항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44.4%, 가끔씩 먹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3.1%로 전체 응답자의 2/3 정도는 아침식사를 하는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1> 참조). 이에 비해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은 16.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면, 우선 아침을 전혀 먹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먹지 않는 편이거나 가끔씩 먹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상대적으로 아침식사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집단별 아침식사 여부의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의 경우 가끔씩 먹는다고 응답하거나 항상 먹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에는 63.2%로 약 10%p 정도 차이가 있었으며, 반면에 전혀 먹지 않거나 먹지 않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27.3%, 여학생이 36.7%인 것으로 나타나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 비율이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아침식사 여부에서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중학생들 가운데 아침식사를 하는 비

율은 73.3%로 전체 응답자의 3/4 수준에 가까운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61.5%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21> 아침식사(%)

구 분	N(명)	전혀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편이다	가급적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χ^2
고양시	1,362	16.1	16.4	23.1	44.4	-
전국	-	6.3	22.6	.35.0	36.2	-
남	641	15.4	12.3	25.7	46.5	17.61**
여	702	16.5	20.2	20.9	42.3	
일산 동구	538	15.4	15.2	23.2	46.1	2.38
일산 서구	421	16.2	18.3	23.0	42.5	
덕양구	403	16.9	16.1	22.8	44.2	
중학생	679	12.8	13.8	24.0	49.3	22.79***
고등학생	661	19.2	19.2	22.5	39.0	

* $p < .05$, ** $p < .01$, *** $p < .001$

아침식사의 경우와는 달리 점심식사는 거의 대부분 학교에서 급식의 형태로 하게 되므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점심식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점심식사 여부에서는 전국 청소년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집단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표 22> 참조).

<표 22> 점심식사(%)

구 분	N(명)	전혀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편이다	가급적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χ^2
고양시	1,363	.3	2.6	12.0	85.2	-
전국	-	.2	1.2	13.3	85.4	
남	640	.2	2.3	12.2	85.3	1.07
여	704	.4	2.7	11.6	85.2	
일산 동구	538	.2	3.3	11.2	85.3	7.63
일산 서구	420	.7	2.6	12.4	84.3	
덕양구	405	.0	1.5	12.6	85.9	
중학생	679	.3	3.4	13.0	83.4	6.01
고등학생	663	.3	1.7	10.7	87.3	

* $p < .05$, ** $p < .01$, *** $p < .001$

가급적 또는 항상 저녁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94.2%로 점심식사의 경우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이었으나, 아침식사의 경우보다는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3> 참조). 또한 전국 청소년들과 비교해 볼 때, 가급적 먹거나 항상 먹는 비율이 두 조사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점심식사의 경우에는 집단별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저녁식사의 경우에는 아침식사에서와 마찬가지로 성별 및 학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별의 경우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이 저녁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으며(남학생 67.9%, 여학생 63.2%), 고등학생들 보다는 중학생들이 저녁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 73.3%, 고등학생 61.5%)

<표 23> 저녁식사(%)

구 분	N(명)	전혀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편이다	가급적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χ^2
고양시	1,362	.9	5.0	25.6	68.6	-
전국	-	.2	1.3	19.4	79.1	-
남	639	.6	2.5	17.1	79.8	73.07***
여	703	1.0	7.1	33.6	58.3	
일산 동구	538	.7	5.0	24.3	69.9	3.46
일산 서구	419	1.2	6.0	25.3	67.5	
덕양구	404	.7	4.0	27.5	67.8	
중학생	679	.7	4.9	20.5	73.9	21.47***
고등학생	661	.9	5.0	31.3	62.8	

* $p < .05$, ** $p < .01$, *** $p < .001$

(4) 스트레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조사에서는 이와 관련한 2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그 가운데 우선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경험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에 대해 본 조사에 참여한 고양시 청소년들 가운데 73.6%는 가끔 또는 자주 경험했다고 응답함으로써 약 3/4 정도가 일상생활 가운데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결과와 비교해 보면, 일주일에 한두번 경험한 비율은 전국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자주 경험한 비율은 고양시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반적

으로 고양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경험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자주 혹은 가끔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67.8% 정도인데 비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79.1%로 11.3%p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더 자주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경험에서의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은 반면,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가끔 경험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비율이 매우 유사한 수준인 반면, 스트레스를 자주 경험한다는 비율은 고등학생들에서 더 높게 나타난 반면, 한두번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등학생들의 스트레스 경험 빈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4> 스트레스(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

구 분	N(명)	그런 적이 없다	한두 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χ^2
고양시	1,377	5.4	21.0	41.8	31.8	-
전국	-	8.5	37.7	46.0	7.9	-
남	649	7.4	24.8	43.9	23.9	45.19***
여	709	3.4	17.5	39.9	39.2	
일산 동구	543	5.7	18.2	42.5	33.5	6.18
일산 서구	427	4.2	22.2	42.2	31.4	
덕양구	407	6.1	23.3	40.5	30.0	
중학생	683	5.9	23.9	41.9	28.4	11.46**
고등학생	672	4.8	18.2	41.5	35.6	

* $p < .05$, ** $p < .01$, *** $p < .001$

연속적으로 2주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에 대한 고양시 청소년들의 응답을 살펴보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7%가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가끔 혹은 자주 그런 경험을 했다고 응답한 비율도 24.2% 정도로 전체 응답자의 약 1/4 정도는 비교적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어떠한 형태로든 이러한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공해 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표 25> 참조). 특히 전국의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면, 2주간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비율이 전국의 경우에는 28.5%인 반면,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는 53.3%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 정도가 전국 평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25> 스트레스(2주 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

구 분	N(명)	그런 적이 없다	한두 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χ^2
고양시	1,372	46.7	29.1	16.7	7.5	-
전국	-	71.5	19.2	8.4	0.9	-
남	643	53.3	28.8	12.4	5.4	30.41***
여	710	41.1	29.2	20.3	9.4	
일산 동구	541	41.8	32.0	18.1	8.1	12.47
일산 서구	426	46.7	29.1	16.7	7.5	
덕양구	405	53.3	25.2	14.8	6.7	
중학생	682	48.1	28.9	15.8	7.2	1.00
고등학생	668	45.7	29.3	16.5	7.5	

* p < .05, ** p < .01, *** p < .001

심각한 수준의 스트레스 경험에서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와 달리 성별에 따른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가끔 또는 자주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17.8%인데 비해 여학생들은 29.7%인 것으로 나타나 11.7%p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5) 정서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자아존중감 수준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알아볼 수 있는 3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우선 자신이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에 관한 문항에 대해 고양시 청소년들은 85%가 ‘그런 편이다’ 이거나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6> 참조). 다만,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와 비교해 보면,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그런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전국 청소년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의 자신에 대한 평가가 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자신이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정도에 있어서 집단 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즉 성별, 지역별 및 학교급별 응답 분포는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전체 응답자들의 응답 분포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하위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26> 자아존중감(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76	2.0	13.1	56.1	28.9	-
전국	-	0.3	7.0	66.2	26.5	-
남	647	2.0	11.6	58.3	28.1	3.71
여	710	1.8	14.6	54.1	29.4	
일산 동구	541	2.4	13.5	55.5	28.7	1.74
일산 서구	427	1.4	13.1	55.7	29.7	
덕양구	408	2.0	12.5	57.4	28.2	
중학생	683	2.5	12.2	55.3	30.0	4.00
고등학생	671	1.3	14.2	56.6	27.9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의 경우도 앞의 문항에서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전체 응답자 가운데 83.6%는 자신이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성별이나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27> 참조). 그러나 학교급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에서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그런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고등학생의 경우에 조금 더 높게 나타난 반면,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중학생들에게서 조금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등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7> 자아존중감(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76	1.9	14.5	57.3	26.3	-
전국	-	0.3	8.1	70.5	21.2	-
남	647	2.2	12.7	56.4	28.7	7.39
여	710	1.4	16.5	58.0	24.1	
일산 동구	541	2.0	16.5	53.4	28.1	6.60
일산 서구	426	1.6	13.6	58.5	26.3	
덕양구	409	2.0	13.0	61.1	24.0	
중학생	682	2.1	17.9	53.7	26.4	14.22**
고등학생	672	1.3	11.3	61.0	26.3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는 전체 응답자의 76.8%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였으며, 이 문항에 대한 긍정 응답 비율이 앞의 두 문항(85% 및 83.6%)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표 28> 참조). 전국 수치와 비교해보면 그런 편이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89.4%)이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76.8%)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이 전국 청소년들에 비해 자신에 대한 만족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8> 자아존중감(나 자신에 대해 대체로 만족한다, %)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75	3.1	20.1	52.9	23.9	-
전국	-	0.7	9.9	72.1	17.2	-
남	646	2.6	16.7	51.9	28.8	20.98***
여	711	3.4	23.5	53.7	19.4	
일산 동구	540	4.1	21.7	50.6	23.7	6.38
일산 서구	426	2.3	19.7	52.3	25.6	
덕양구	409	2.7	18.3	56.5	22.5	
중학생	683	3.8	17.9	51.5	26.8	11.15*
고등학생	671	2.4	22.7	53.9	21.0	

* $p < .05$, ** $p < .01$, *** $p < .001$

자신에 대한 평가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들 가운데 긍정적인 응답을 한 비율이 80.7%인 반면, 여학생들은 73.1%로 남학생들이 자신에 대해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는 $\alpha = .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그렇지 않은 편이다’와 ‘매우 그렇다’에서 두 집단 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흡연 및 음주 경험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의 비행 경험 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장 많이 언급되는 흡연과 음주 경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우선 흡연 경험에 있어서 고양시 청소년들은 전체 응답자의 6.3%가 최근 1년 간 흡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29> 참조). 이는 2016년에 조사된 청소년들의 현재 흡연율이 6.3% 정도와 매우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가족부, 2016).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들의 흡연 경험률은 9.9%인 반면, 여학생들은 2.6% 수준이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다만 학교급의 경우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9.9% 수준이었으나,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2.5%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흡연율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29> 흡연 및 음주 경험

구 분	흡연 경험		음주 경험	
	N	있다(%)	N	있다(%)
고양시	1,386	6.3	1,341	12.5
전국 ^a	-	6.3	-	15.0
남	634	9.9***	635	14.8*
여	691	2.6***	689	10.2*
일산 동구	525	4.8	525	9.5**
일산 서구	423	7.3	423	11.3**
덕양구	366	7.1	393	17.6**
중학생	677	2.5***	677	5.0***
고등학생	644	9.9***	643	20.1***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경험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의 12.5%가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2016년에 조사된 현재 음주율 15% 수준인 것에 비해 약간 낮은 수치임을 알 수 있다(여성가족부, 2016). 음주 경험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남학생들의 최근 1년간 음주 경험 비율은 14.8%인데 비해 여학생들은 10.2%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지역별로는 일산 동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음주 비율이 9.5%로 가장 낮았으며, 다음으로는 일산 서구의 경우가 11.3%이었고, 덕양구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들의 음주 비율은 17.6%로 일산 동구의 경우에 비해 거의 2배 가량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에서는 왜 이러한 차이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보다 체계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들의 음주 경험은 5%에 불과하였으나, 고등학생들은 20%가 최근 1년간 술을 마신 경험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5명 가운데 1명은 음주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활동 및 여가

(1) 청소년 활동 경험

본 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활동에의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총 9개의 활동 유형 가운데 문화예술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8.8%로 가장 높았으며, 직업진로활동이 66.5%, 자원봉사활동이 54.7%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문화예술활동, 직업진로활동, 자원봉사활동의 경우에는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0> 참조).

이에 비해 건강보건활동은 39.2%, 모험개척활동은 25.5%, 과학정보활동은 24.8%, 자기(인성)계발활동은 22.6%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환경보존활동은 19.6%가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국제교류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다른 활동들에 비해 참여 경험 수준이 가장 낮은 활동 유형이 국제교류활동임을 알 수 있다.

전국 청소년들의 활동 참여 경험과 비교해보면, 문화예술활동의 경우에는 고양시 청소년들과 전국의 청소년들 간에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한 모든 활동 유형에서 고양시 청소년들의 참여 정도가 일관성있게 높게 나타남으로써, 청소년 활동에 있어 고양시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0> 문화예술활동 경험

구 분	문화예술활동		과학정보활동		모험개척활동	
	N	있다(%)	N	있다(%)	N	있다(%)
고양시	1,354	68.8	1,349	24.8	1,348	25.5
전국	-	63.4	-	16.4	-	18.4
남	363	58.5***	634	27.4*	634	25.1
여	701	78.6***	699	22.5*	698	26.2
일산 동구	528	67.8	528	26.3***	527	27.7
일산 서구	419	70.4	417	16.5***	416	23.6
덕양구	407	68.6	404	31.4***	405	24.7
중학생	674	72.0*	673	23.9	672	27.7
고등학생	661	66.4*	658	25.7	658	23.9
구 분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활동		국제교류활동	
	N	있다(%)	N	있다(%)	N	있다(%)
고양시	1,341	54.7	1,333	66.5	1,342	7.1
전국	-	24.9	-	24.7	-	3.4

남	634	47.5***	629	58.8***	630	6.7
여	691	61.4***	688	73.8***	696	7.5
일산 동구	529	56.1	528	72.3***	527	6.3
일산 서구	416	53.8	414	68.8***	416	6.5
덕양구	396	53.8	391	56.3***	399	8.8
중학생	672	60.7***	671	72.6***	671	7.3
고등학생	651	48.7***	644	60.9***	653	6.9
구 분	건강보건활동		자기(인성)계발활동		환경보존활동	
	N	있다(%)	N	있다(%)	N	있다(%)
고양시	1,344	39.2	1,340	22.6	1,335	19.6
전국	-	18.1	-	13.2	-	15.6
남	633	37.1	631	18.1***	630	18.9
여	695	41.0	694	26.7***	690	20.1
일산 동구	528	45.3***	525	21.9	523	18.2
일산 서구	416	32.0***	416	20.4	417	19.4
덕양구	400	38.8***	399	25.8	395	21.8
중학생	672	37.6	671	22.2	671	24.6***
고등학생	654	41.0	652	23.0	647	14.4***

* p < .05, ** p < .01, *** p < .001 (집단별 차이 분석(χ^2)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경우)

각 활동 참여경험에서의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문화예술활동의 경우 남학생(58.5%)보다는 여학생(78.6%)들의 참여 경험, 고등학생(66.4%)보다는 중학생(72.0%)들의 참여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정보활동의 경우, 여학생들의 참여 경험이 22.5%인 것에 비해 남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27.4%로 약 5%p 정도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의 순으로 참여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험개척활동에 있어서는 집단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자원봉사활동에서는 남학생(47.5%)들보다는 여학생(61.4%)들의 참여 경험, 고등학생(48.7%)보다는 중학생(60.7%)들의 참여 경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진로활동의 경우에는 남학생들의 참여 경험이 58.8%인 것이 비해 여학생들의 참여 경험이 73.8%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의 순으로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로는 중학생의 참여 경험이 72.6%로 60.9%의 참여 경험을 보인 고등학생들보다 약 10%p 이상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교류활동의 경우에는 전체 참여 경험 자체도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으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에 비해 신체단련, 안전·응급처치 등의 건강보건활동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학교급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일산 동구, 덕양구, 일산 서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기(인성)계발활동은 여학생들의 참여 경험인 26.7%인 반면, 남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18.1% 정도였으나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환경보존활동의 경우에는 성별이나 지역별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중학생들의 참여 경험이 24.6%였고 고등학생들의 참여 경험은 14.4%에 불과하여 약 10%p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 참여 경로(%)

구 분	N	친구/선배 권유	부모/가족 권유	학교교사 권유	청소년시설 지도사 권유
고양시	621	12.2	25.4	15.5	6.1
전국 ^a	-	46.8	24.9	34.0	4.6
남	289	14.5	31.5	18.3	4.2
여	326	10.1	20.6	12.3	7.7
일산 동구	249	12.9	24.5	14.1	5.2
일산 서구	220	12.3	27.3	14.1	5.0
덕양구	152	11.2	24.3	19.7	9.2
중학생	313	9.3	38.0	15.0	5.4
고등학생	299	15.4	13.0	15.1	6.4
구 분	홍보를 통해	인터넷을 통해	기타	χ^2	
고양시	14.7	15.9	10.1	-	
전국	10.7	12.1	1.7		
남	11.1	11.1	9.3	30.16***	
여	17.8	20.6	11.0		
일산 동구	15.7	18.1	9.6	22.22*	
일산 서구	12.3	13.6	15.5		
덕양구	16.4	15.8	3.3		
중학생	9.9	11.5	10.9	60.95***	
고등학생	20.1	20.7	9.4		

* $p < .05$, ** $p < .01$, *** $p < .001$

a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는 복수응답이 가능하도록 문항이 구성되어 있음

이러한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부모나 가족의 권유에 의해 참여하게 된 경우가 25.4%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인터넷을 통해(15.9%), 학교교사의 권유를 통해(15.5%), 홍보를 통해(14.7%), 그리고 친구나 선배의 권유를 통해(12.2%)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1> 참조). 특히 이러한 참여 경로는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었는데,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나 가족, 학교교사, 친구나 선배 등 타인의 권유를 통해 참여하게 된 비율이 상대적으

로 높은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인터넷이나 홍보를 통해 참여하게 되는 경우가 남학생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학교급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학생들은 주로 다른 사람의 권유에 의해서 참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고등학생들은 인터넷이나 홍보 등 스스로 정보를 파악하여 참여하는 비율이 중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향후 청소년활동에 대한 홍보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표 32>의 활동 참여에 따른 만족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63.5%는 참여한 활동에 대하여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1.8%는 보통이라고 응답하였고, 4.8%가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4> 참조). 이를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에 대한 전국 청소년들의 긍정 응답(만족 + 매우 만족) 비율은 70.7%인 반면, 고양시 청소년들은 63.5%인 것으로 나타나 다소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서의 성별 및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학교급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즉 중학생들의 경우 만족하는 비율이 60.2%인 반면, 고등학생들은 67.9%로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보통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의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표 32> 청소년활동 참여 만족도

구 분	N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보통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χ^2
고양시	1,111	1.2	3.6	31.8	50.6	12.9	-
전국	-	0.6	2.5	26.2	60.9	9.8	
남	475	1.7	3.4	33.5	49.5	12.0	3.72
여	623	.8	3.5	30.0	52.0	13.6	
일산 동구	445	1.1	3.6	31.9	49.2	14.2	4.40
일산 서구	348	1.7	4.3	31.9	50.9	11.2	
덕양구	318	.6	2.8	31.4	52.2	12.9	
중학생	573	1.2	3.5	35.1	45.0	15.2	18.24**
고등학생	523	1.0	3.8	27.3	57.4	10.5	

* $p < .05$, ** $p < .01$, *** $p < .001$

고양시 청소년들이 향후에 참여하고 싶은 활동 가운데 1순위로 꼽은 활동은 문화 예술활동으로 48.4%의 응답자들이 하고 싶은 활동 1순위로 선택하였다. 그 다음으

로는 직업진로활동, 모험개척활동이 각각 15.1%, 11.3% 수준이었으며, 나머지 유형의 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모두 10%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3> 참조).

향후 하고 싶은 활동에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문화예술활동을 선호하는 남학생들의 비율이 34.4%인 것에 비해 여학생들은 60.6%를 선호하고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과학정보활동 및 모험개척활동에 대한 선호도는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2순위로 하고 싶은 활동의 경우에는 직업진로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22.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모험개척활동, 문화예술활동, 자기계발활동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4> 참조).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1순위로 선호한 활동의 경우와 유사하게 직업진로활동, 국제교류활동, 자기계발활동에서는 여학생들이, 과학정보활동 및 모험개척활동에서는 남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하고 싶은 활동(1순위, %)

구 분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고양시(N=1,202)	48.4	5.5	11.3	4.4	15.1
전국	39.3	8.3	14.8	6.7	8.6
남(N=550)	34.4	10.2	17.8	3.8	15.1
여(N=642)	60.6	1.6	5.5	4.8	15.1
일산동구(N=473)	51.0	5.1	11.2	4.0	14.0
일산서구(N=380)	51.3	4.5	9.7	3.4	17.4
덕양구(N=349)	41.8	7.2	13.2	6.0	14.0
중학생(N=613)	47.5	5.7	13.5	4.1	15.7
고등학생(N=577)	49.7	5.2	8.7	4.7	14.6
구 분	국제교류	건강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	χ^2
고양시	5.1	5.1	3.2	2.0	-
전국	8.4	4.3	4.6	3.0	-
남	4.9	6.5	4.0	3.3	137.99***
여	5.3	3.7	2.5	.9	
일산 동구	3.8	4.9	3.0	3.2	29.25*
일산 서구	4.2	5.5	2.4	1.6	
덕양구	7.7	4.9	4.3	.9	
중학생	4.4	3.9	2.9	2.3	12.03
고등학생	5.9	6.4	3.5	1.7	

* $p < .05$, ** $p < .01$, *** $p < .001$

<표 34> 하고 싶은 활동(2순위, %)

구 분	문화예술	과학정보	모험개척	자원봉사	직업진로
전체(N=1,185)	14.0	7.7	16.2	8.8	22.1
남(N=541)	13.1	11.3	20.9	7.6	18.1
여(N=635)	14.8	4.6	12.4	9.9	25.5
일산동구(N=463)	12.3	9.5	16.6	7.6	21.0
일산서구(N=378)	13.8	5.3	15.3	8.5	27.5
덕양구(N=344)	16.6	7.8	16.6	10.8	17.7
중학생(N=606)	13.5	6.8	18.2	8.4	23.1
고등학생(N=568)	14.4	8.6	14.1	9.3	22.1
구 분	국제교류	건강보건	자기계발	환경보존	χ^2
전체	8.3	7.6	10.3	5.1	64.37***
남	5.2	10.2	8.1	5.5	
여	10.6	5.4	12.3	4.6	
일산 동구	9.1	7.3	11.4	5.2	22.85
일산 서구	6.9	7.7	10.8	4.2	
덕양구	8.7	7.8	8.1	5.8	
중학생	6.9	7.9	8.4	6.8	18.98*
고등학생	9.3	7.2	12.5	3.3	

* $p < .05$, ** $p < .01$, *** $p < .001$

(2) 청소년 단체활동 경험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나 동아리에 관한 문항에 대해 고양시 청소년들의 32.6%는 스카우트 등과 같은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의 경우에는 28.5%가, 종교단체를 포함한 기타 단체에는 24.7%가 활동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35> 참조).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경험 정도는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2배 이상 참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도 고양시 청소년들의 단체활동 경험 정도는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동아리 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집단별로 살펴보면 우선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의 경우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참여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참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이버단체나 동아리 활동의 경우에도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참여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전반적으로 여학생들이 보다 활발하

게 단체활동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5>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활동

구 분	청소년단체나 동아리		사이버단체나 동아리		기타	
	N	있다(%)	N	있다(%)	N	있다(%)
고양시	1,366	32.6	1,362	28.5	1,358	24.7
전체	-	12.5	-	16.9	-	18.3
남	648	28.2**	642	26.0*	638	23.5
여	701	36.7**	703	31.2*	703	25.6
일산 동구	537	34.1	535	31.4	531	26.7
일산 서구	427	30.4	425	28.2	423	24.1
덕양구	402	32.8	402	24.9	404	22.8
중학생	682	27.1***	678	28.0	673	22.6
고등학생	663	38.3***	663	29.3	664	26.8

* p < .05, ** p < .01, *** p < .001

최근 1년 동안 청소년 관련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과 관련하여 우선 청소년센터 등을 비롯한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의 청소년활동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의 경우 1,367명의 응답자 가운데 62.1%는 한 번도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36> 참조)⁶⁾. 반면에 일 년에 1~2회 정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1.2%였으며, 한 달에 1~2회는 4.5%, 일주일에 1~2회는 2.2%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실제 청소년 수련시설을 자주 이용하는 비율은 7%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36> 시설 이용 경험(청소년수련시설, %)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χ^2
전체	1,367	62.1	31.2	4.5	2.2	-
남	648	65.1	29.5	3.9	1.5	6.69
여	702	59.3	32.9	5.0	2.8	
일산 동구	537	60.3	37.1	1.9	.7	64.08***
일산 서구	424	61.1	32.5	2.8	3.5	
덕양구	406	65.5	21.9	9.9	2.7	
중학생	680	67.4	28.5	2.5	1.6	24.24***
고등학생	667	56.4	34.3	6.4	2.8	

* p < .05, ** p < .01, *** p < .001

6) 본 조사에서 사용된 수련시설 이용 경험과 관련한 문항은 청소년종합실태조사의 경우와 다르게 구성되어 있으므로, 두 조사 간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다.

수련시설 이용과 관련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일산 동구와 일산 서구의 청소년들의 이용 경험이 덕양구 청소년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들의 시설 이용 비율이 중학생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용해 본 경험의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들 가운데 92.7%가 이용해 본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으며, 일 년에 1~2회 정도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4.6%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7 참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이용과 관련한 집단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7> 시설 이용 경험(청소년상담복지센터, %)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χ^2
전체	1,361	92.7	4.6	1.4	1.2	-
남	645	92.9	4.8	1.2	1.1	.70
여	699	93.0	4.1	1.6	1.3	
일산 동구	533	92.7	4.9	1.1	1.3	2.30
일산 서구	424	92.5	5.0	1.2	1.4	
덕양구	404	93.1	4.0	2.0	1.0	
중학생	677	92.2	5.3	1.3	1.2	2.33
고등학생	664	93.74	3.6	1.5	1.2	

* $p < .05$, ** $p < .01$, *** $p < .001$

<표 38> 시설 이용 경험(청소년카페, %)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χ^2
전체	1,358	72.2	19.7	7.7	.4	-
남	642	82.2	12.5	4.8	.5	62.16**
여	699	63.1	26.5	10.0	.4	
일산 동구	528	83.1	13.1	3.6	.2	128.07***
일산 서구	423	77.8	14.2	7.1	.9	
덕양구	407	52.1	34.2	13.5	.2	
중학생	676	77.8	16.0	5.9	.3	22.13***
고등학생	662	66.3	23.9	9.2	.6	

* $p < .05$, ** $p < .01$, *** $p < .001$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는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카페를 운영하고 있

다. 이 시설에 대한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2.2%로 전체 응답자의 약 3/4 정도에 달하는 청소년들이 청소년카페를 이용한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8> 참조). 집단별 이용 현황을 살펴보면,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지역적으로는 일산 동구, 일산 서구, 덕양구의 순으로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의 이용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대표적인 청소년 이용시설로 볼 수 있는 공공도서관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72.5%가 한 번 이상 이용해 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고, 일년에 1~2회는 37.2%, 한 달에 1~2회는 28.4%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공연시설 다음으로 이용 경험률이 높은 시설임을 알 수 있다(<표 39> 참조).

<표 39> 시설 이용 경험(공공도서관, %)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χ^2
전체	1,357	27.5	37.2	28.4	6.9	-
남	640	33.8	32.5	26.7	7.0	27.03***
여	701	21.5	41.5	30.2	6.7	
일산 동구	528	27.8	37.9	27.3	7.0	3.72
일산 서구	423	27.7	34.8	29.6	8.0	
덕양구	406	26.8	38.9	28.8	5.4	
중학생	673	29.9	38.2	25.7	6.2	8.01*
고등학생	665	24.7	36.5	31.3	7.5	

* $p < .05$, ** $p < .01$, *** $p < .001$

집단별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의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었으며,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의 이용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 따른 이용 경험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공연장이나 영화상영관 등과 같은 공연 시설 이용 경험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의 86.9%가 이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일년에 1~2회 정도는 28.1%, 한 달에 1~2회 정도는 52.6%인 것으로 나타나 절반 이상이 한 달에 1회 이상 이용한 경험이 있음을 알 수 있다(<표 40> 참조).

집단별 이용 경험의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 가운데 공연시설을 한 번도 이용한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18.2%인 반면, 여학생들 중에는 8.1%로 상당한 차이를 보였으며, 실제 이용 빈도에 관한 각 범주에서 이용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여학생들에게서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공연시설을 더

자주 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0> 시설 이용 경험(공연시설, %)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χ^2
전체	1,363	13.1	28.1	52.6	6.2	-
남	647	18.2	25.2	51.3	5.3	32.19***
여	701	8.1	30.8	54.2	6.8	
일산 동구	531	13.9	26.9	52.5	6.6	3.78
일산 서구	426	13.1	27.5	52.3	7.0	
덕양구	406	12.1	30.3	53.0	4.7	
중학생	678	14.7	28.8	50.9	5.6	6.03
고등학생	667	10.8	27.4	55.2	6.6	

* $p < .05$, ** $p < .01$, *** $p < .001$

학교에 가는 날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본 결과,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15.2%인 반면, 1~2시간 정도는 30.0%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 2~3시간 정도가 21.7%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1> 참조). 따라서 평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으로 1시간 이상 3시간 미만의 경우가 약 51% 정도임을 알 수 있다.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으로써 여가시간과 관련하여 고양시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압박감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표 41> 평일 여가시간(%)

구 분	N(명)	1시간 미만	1~2시간 미만	2~3시간 미만	3~4시간 미만	4~5시간 미만	5시간 이상	χ^2
고양시	1,367	15.2	30.0	21.7	14.5	7.9	10.6	-
전국 ^a	-	23.6	30.7	18.7	11.7	6.1	9.2	-
남	640	12.2	30.5	20.0	15.8	9.5	12.0	19.00**
여	706	18.6	29.3	23.2	13.5	6.2	9.2	
일산 동구	534	14.8	30.0	19.5	16.1	8.4	11.2	23.58**
일산 서구	423	14.9	26.7	20.3	16.8	8.7	12.5	
덕양구	405	16.8	33.3	25.9	10.1	6.2	7.7	
중학생	678	12.7	24.8	23.0	17.0	9.3	13.3	37.88***
고등학생	664	18.2	35.1	20.2	12.3	6.3	7.8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여가시간과 관련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우선 3시간 정도까지는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3시간 이상부터는 남학생들의 비율이 여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남녀 구분 없이 절반 이상의 청소년들은 3시간 미만 정도 여가시간이 있다고 응답하고 있으나, 그 이상의 수준에서는 남학생의 비율에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학교급의 경우에도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2시간 정도까지는 고등학생 비율이 중학생보다 높았으나, 그 이상의 시간대에서는 중학생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3시간 정도까지는 덕양구 청소년들의 응답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그 이상의 시간대에서는 덕양구 청소년들의 비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아르바이트 경험

현재까지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 전체 응답자의 17.9%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2> 참조). 이는 2014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에서 나타난 31.2%보다 낮은 수치이다.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는 현재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거나 2016년 한 해 동안 일을 한 경험에 대한 문항에서는 11.3%가 그렇다고 응답하여 이보다는 조금 높은 수치이나 직접적인 비교보다는 전반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정도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인다.

<표 42> 생애 아르바이트 경험

구 분	N	있다(%)	χ^2
고양시	1,151	17.9	-
전국 ^a	-	11.3	
남	539	20.0	3.06
여	604	16.1	
일산 동구	393	17.6	.75
일산 서구	396	19.2	
덕양구	362	16.9	
중학생	631	10.9	46.89***
고등학생	512	26.6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인용함

아르바이트 경험과 관련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 및 지역에 따른 아르바이트 경험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학교급에 따라서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청소년들이 노동부장관의 취

직인허증 없이 일을 할 수 있는 연령이 15세 이상임을 감안하면, 당연한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는가를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65.2%의 청소년들이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43> 참조). 집단별로 살펴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은 상당히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지역별로는 일산 서구의 경우가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참여 경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특히 일산 서구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본 조사에 특성화고 1개교를 포함하였는데, 해당 고교가 일산 서구에 위치한 고등학교이고, 특성화 고등학생의 아르바이트 참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표 43>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구 분	N	있다(%)	χ^2
전체	287	65.2	-
남	145	66.9	.22
여	137	64.2	
일산 동구	144	50.7	36.29***
일산 서구	78	91.0	
덕양구	65	66.2	
중학생	85	51.8	10.14**
고등학생	196	71.4	

* $p < .05$, ** $p < .01$, *** $p < .001$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 경험과 관련하여 특별히 관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들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처우를 경험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이다. 본 조사에서는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경험한 적이 있는지에 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먼저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였거나 약속보다 작게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서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2.4%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4> 참조). 이는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에서 나타난 8.8%보다는 약간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집단별 경험을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 아니었으나, 지역 및 학교급별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즉 일산 서구나 동구보다는 덕양구에 소재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들과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부당노동행위 -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적게 받음(%)

구 분	N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χ^2
고양시	250	87.6	8.0	4.4	-
전국 ^a	-	91.2	-	-	-
남	132	84.1	9.1	6.8	4.27
여	115	91.3	7.0	1.7	
일산 동구	126	92.1	5.6	2.4	9.87*
일산 서구	76	82.9	7.9	9.2	
덕양구	48	83.3	14.6	2.1	
중학생	91	94.5	4.4	1.1	7.07*
고등학생	154	83.1	10.4	6.5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인용하였으나, 응답 양식이 본 조사와 달라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수치만 제시함

두 번째로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받지 못한 경험의 경우에는 12.9%의 청소년들이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는 앞의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응답한 12.5%와 유사한 수준이었으나,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 수준(6.6%)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성별과 지역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학교급의 경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이 해당 경험을 더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부당노동행위 - 초과근무/휴일근무에 대한 임금 미지급(%)

구 분	N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χ^2
고양시	248	87.1	7.3	5.6	-
전국 ^a	-	93.4	-	-	-
남	130	83.8	8.5	7.7	2.67
여	115	90.4	6.1	3.5	
일산 동구	124	93.5	3.2	3.2	9.41
일산 서구	76	80.3	11.8	7.9	
덕양구	48	81.3	10.4	8.3	
중학생	91	95.6	3.3	1.1	9.40**
고등학생	152	82.2	9.9	7.9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인용하였으나, 응답 양식이 본 조사와 달라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수치만 제시함

세 번째로 처음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킨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6.9%, 6.9%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임금과 관련한 부당 경험보다는 조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46> 참조)⁷⁾. 또한 집단 간 차이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성별, 지역별 및 학교급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표 46> 부당노동행위 - 하기로 한 일과 다른 일을 시킴(%)

구 분	N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χ^2
전체	247	89.5	6.9	3.6	-
남	130	88.5	6.2	5.4	2.46
여	114	90.4	7.9	1.8	
일산 동구	123	94.3	4.1	1.6	7.29
일산 서구	76	86.8	7.9	5.3	
덕양구	48	81.3	12.5	6.3	
중학생	91	95.6	3.3	1.1	5.69
고등학생	151	86.1	8.6	5.3	

* $p < .05$, ** $p < .01$, *** $p < .001$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항에서는 한두 번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9.9%, 여러 번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4.1%로 적어도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한번 이상 다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47> 참조). 아르바이트 중 부상을 당한 경험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역별로는 일산 서구의 경우가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덕양구, 일산 동구의 순으로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고등학생의 경우가 중학생의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47> 부당노동행위 -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음(%)

구 분	N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χ^2
전체	246	76.0	19.9	4.1	-
남	130	76.9	18.5	4.6	.43
여	113	75.2	21.2	3.5	
일산 동구	122	86.9	12.3	.8	19.34**
일산 서구	76	61.8	31.6	6.6	
덕양구	48	70.8	20.8	8.3	
중학생	91	96.7	2.2	1.1	33.66***
고등학생	150	64.0	30.0	6.0	

* $p < .05$, ** $p < .01$, *** $p < .001$

7) 본 문항과 더불어 다른 부당노동행위 관련 문항의 경우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직접 비교할 수 있는 문항이 존재하지 않아 전국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다.

<표 48>은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고용주로부터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응답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응답자들 가운데 11.3%는 그런 경험이 적어도 한번 이상 있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10명 가운데 1명은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고용주로부터 심한 말을 포함한 인격모독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르바이트 중 인격모독을 당한 경험의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성별에 따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역적으로 일산 서구와 덕양구의 경우가 비슷한 수준이었으며, 일산 동구의 경우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앞의 부당경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인격모독 경험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부당노동행위 -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음(%)

구 분	N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χ^2
전체	247	88.7	9.3	2.0	-
남	130	85.4	11.5	3.1	3.06
여	114	92.1	7.0	.9	
일산 동구	123	94.3	4.9	.8	12.59*
일산 서구	76	82.9	11.8	5.3	
덕양구	48	83.3	16.7	.0	
중학생	91	96.7	3.3	.0	10.06**
고등학생	151	83.4	13.2	3.3	

* $p < .05$, ** $p < .01$, *** $p < .001$

<표 49> 부당노동행위 -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음(%)

구 분	N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χ^2
전체	246	95.1	3.3	1.6	-
남	129	93.0	4.7	2.3	2.43
여	114	97.4	1.8	.9	
일산 동구	122	98.4	1.6	.0	9.75*
일산 서구	76	93.4	2.6	3.9	
덕양구	48	89.6	8.3	2.1	
중학생	91	97.8	2.2	.0	3.10
고등학생	150	95.0	3.3	1.7	

* $p < .05$, ** $p < .01$, *** $p < .001$

고용주로부터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이 경우에는 4.9%만이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거의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구타나 폭행을 당한 경험은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 가운데 약 5% 정도는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구타나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이나 학급별 집단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덕양구의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는 4.8%가 한두 번 혹은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청소년들 가운데 4.8%가 성희롱 또는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성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덕양구의 경우에 해당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0> 부당노동행위 -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음(%)

구 분	N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χ^2
전체	247	95.1	3.6	1.2	-
남	130	93.8	4.6	1.5	.91
여	114	96.5	2.6	.9	
일산 동구	123	99.2	.8	.0	12.35*
일산 서구	76	93.4	3.9	2.6	
덕양구	48	87.5	10.4	2.1	
중학생	91	97.8	2.2	.0	2.83
고등학생	151	93.4	4.6	2.0	

* $p < .05$, ** $p < .01$, *** $p < .001$

<표 51> 부당노동행위 -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음(%)

구 분	N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χ^2
전체	246	94.3	4.5	1.2	-
남	129	92.2	6.2	1.6	2.04
여	114	96.5	2.6	.9	
일산 동구	122	99.2	.8	.0	24.38***
일산 서구	76	94.7	2.6	2.6	
덕양구	48	81.3	16.7	2.1	
중학생	91	97.8	2.2	.0	3.82
고등학생	150	92.0	6.0	2.0	

* $p < .05$, ** $p < .01$, *** $p < .001$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한

두 번 혹은 여러 번 그런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7%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성별 및 학교급별에 따른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지역적으로는 덕양구의 경우에 해당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가 지역별 차이를 반영하는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보다 면밀한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 스마트폰 이용

고양시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이용 정도를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95.5%가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 72.6%라는 수치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으며,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52> 참조).

<표 52> 스마트폰 사용

구 분	N	사용한다(%)	χ^2
고양시	1,299	95.5	-
전국 ^a	-	72.6	-
남	611	94.4	4.07*
여	674	96.7	
일산 동구	482	95.4	3.34
일산 서구	417	96.9	
덕양구	400	94.3	
중학생	678	96.3	1.49
고등학생	608	94.9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인용함

청소년들의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한 현상들 가운데 주요 관심사는 스마트폰 의존 정도에 관한 것이다. 이를 알아보기 위해 본 조사에서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한 10개의 문항을 포함하였다. 우선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하는 정도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응답자의 40.6%가 ‘그런 편이다’ 나 ‘매우 그렇다’ 라고 응답하였다(<표 53> 참조). 이는 5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이용시간을 줄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에서 나타난 32.1% 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표 53> 스마트폰 의존 -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5	19.8	39.5	35.1	5.5	-
전국 ^a	-	26.8	41.1	27.5	4.6	-
남	615	27.2	39.7	28.3	4.9	47.10***
여	678	13.3	39.7	41.2	5.9	
일산 동구	512	21.9	36.3	36.1	5.7	7.63
일산 서구	410	20.5	41.7	32.0	5.9	
덕양구	383	16.4	41.5	37.1	5.0	
중학생	657	22.8	39.6	31.5	6.1	11.96**
고등학생	633	16.6	39.8	38.7	5.5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이용시간 조절의 어려움과 관련한 집단별 차이를 살펴보면, 이용시간을 줄이려는 시도에 실패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는 33.2%인 반면, 여학생의 경우는 47.1%로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여학생들이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는데 실패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중학생들 보다는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줄이려는 시도에 실패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4> 스마트폰 의존 -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4	20.3	38.6	35.0	6.1	-
전국 ^a	-	33.7	36.0	26.4	4.0	-
남	615	26.7	37.7	30.7	4.9	32.75***
여	677	14.5	39.4	39.0	7.1	
일산 동구	512	22.3	35.2	36.3	6.3	7.53
일산 서구	409	19.6	40.6	32.5	7.3	
덕양구	383	18.5	41.0	35.8	4.7	
중학생	656	24.1	38.3	31.7	5.9	14.57**
고등학생	633	16.1	39.0	38.5	6.3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다음으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는 문항에 대하여 41.1%의 응답자들이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앞의 문항에서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소년들에게서 나타난 30.4%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표 54> 참조).

특히 집단 간의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스마트폰 이용시간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의 스마트폰 의존 정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려움가에 대한 문항에서는 응답자의 42.6%가 긍정적으로 응답하여 앞의 문항들과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55> 참조). 즉 스마트폰 이용시간 감소 실패, 이용시간 조절의 어려움,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 유지 등 이용 시간과 관련한 문항에서는 응답자 5명 가운데 2명 정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 비율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 55> 스마트폰 의존 -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3	20.3	37.1	37.5	5.1	-
전국 ^a	-	33.0	44.4	18.8	3.8	-
남	613	27.2	36.7	31.6	4.4	39.59***
여	678	14.0	37.5	42.8	5.8	
일산 동구	511	21.7	32.1	41.3	4.9	13.35*
일산 서구	410	21.0	38.8	33.9	6.3	
덕양구	382	17.8	41.9	36.1	4.2	
중학생	656	24.5	35.8	34.6	5.0	16.25**
고등학생	632	15.7	38.6	40.5	5.2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이와 관련한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 시간을 유지하는 것이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이 앞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의 경우에,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용 시간과 관련한 어려움은 여학생과 고등학생들 사이에 더 많이 경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는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3%가 그런 편이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의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 비율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표 56> 참조). 즉 응답자 5명 가운데 2명 정도는 스마트폰이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이용 시간과 관련한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그리고 중학생들 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56>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1	20.4	36.6	36.9	6.1	-
전국 ^a	-	31.2	44.0	20.4	4.4	-
남	612	26.3	33.8	34.3	5.6	25.76***
여	677	14.9	39.3	39.3	6.5	
일산 동구	510	21.0	35.3	36.7	7.1	4.49
일산 서구	409	21.8	35.0	37.7	5.6	
덕양구	382	18.1	40.1	36.4	5.5	
중학생	655	24.1	38.2	32.1	5.6	19.30***
고등학생	631	16.2	35.5	41.7	6.7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지에 대한 문항에서는 앞의 경우와는 조금 다른 양상이 나타났는데, 항상 스마트폰을 생각하고 있는 경향을 보인 정도는 약 13%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전국 수치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었다. 또한 성별,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57> 참조). 스마트폰에 대한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정도로 스마트폰에 의존하는 비율은 앞의 이용 시간과 관련한 의존 정도보다는 약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57>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5	38.5	47.8	11.6	2.0	-
전국 ^a	-	33.3	46.5	16.7	3.5	-
남	615	40.8	45.9	11.7	1.6	3.00
여	678	36.6	49.6	11.7	2.2	
일산 동구	512	39.3	45.7	12.7	2.3	3.99
일산 서구	410	39.0	47.3	11.5	2.2	
덕양구	383	37.1	51.2	10.4	1.3	
중학생	657	41.4	46.0	10.2	2.4	7.75
고등학생	633	35.7	49.8	13.1	1.4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이러한 경향은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는 문항에서도 유

사하게 나타났는데, 이 문항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22.6%로 이용시간과 관련한 과의존 비율보다는 낮은 수준이었고,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 비율(30.3%)보다 낮은 수준이었다(<표 58> 참조). 그러나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이용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앞서와 마찬가지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서 이용 충동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58>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4	32.1	45.4	19.1	3.5	-
전국 ^a	-	28.4	41.3	26.2	4.1	-
남	614	36.8	45.0	15.5	2.8	16.72**
여	678	27.9	46.2	22.0	4.0	
일산 동구	511	35.2	42.5	18.2	4.1	6.45
일산 서구	410	30.0	46.1	20.7	3.2	
덕양구	383	30.0	48.6	18.5	2.9	
중학생	656	36.9	44.2	15.4	3.5	19.23***
고등학생	633	27.0	47.1	22.6	3.3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표 59>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4	52.8	36.6	9.3	1.5	-
전국 ^a	-	27.2	40.6	22.5	9.7	-
남	615	53.5	36.9	8.6	1.0	2.43
여	677	52.4	36.0	9.6	1.9	
일산 동구	511	53.0	36.4	8.6	2.0	6.46
일산 서구	410	51.5	35.4	12.0	1.2	
덕양구	383	54.0	37.3	7.3	1.3	
중학생	657	53.9	35.2	9.6	1.4	1.30
고등학생	632	52.1	38.0	8.5	1.4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험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그런 편이거나 매우 그런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10.8%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9〉 참조). 즉 고양시 청소년 10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는 32.2%로 고양시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경험에 있어서의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았다.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대인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는 것과 관련하여 우선 스마트폰 이용으로 인해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하여 고양시 청소년들의 21.7%가 그런 편이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함으로써 5명 가운데 1명 정도는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의 비교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표 60〉 참조).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요 차이는 전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비율과 그렇지 않은 것으로 응답한 비율에서 남학생과 여학생들 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면, 일산 동구의 경우 다툰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25.4%, 일산 서구의 경우 20.3%, 덕양구의 경우에는 18.2%로 약간의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는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0〉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5	38.6	39.7	16.9	4.8	-
전국 ^a	-	36.5	42.5	17.6	3.4	-
남	615	42.4	36.9	17.1	3.6	9.71*
여	678	35.3	42.5	16.7	5.6	
일산 동구	512	40.6	34.0	19.3	6.1	17.91**
일산 서구	410	37.6	42.2	14.9	5.4	
덕양구	383	37.1	44.6	15.9	2.3	
중학생	657	37.7	40.2	16.7	5.3	1.60
고등학생	633	39.5	39.7	16.9	3.9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다음으로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 대해 응답자의 5.6%가 그런 편이거나 매우 그런 것으로 응답함으로써 다른 문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1〉 참조). 그러나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27.9%가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

이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의 응답 유형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표 61>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5	59.8	34.6	5.1	.5	-
전국 ^a	-	34.0	38.1	23.9	4.0	-
남	615	58.9	35.6	5.2	.3	1.24
여	678	60.9	33.9	4.6	.6	
일산 동구	512	59.6	34.2	5.7	.6	2.11
일산 서구	410	60.7	34.1	4.9	.2	
덕양구	383	59.0	35.8	4.4	.8	
중학생	657	60.4	35.2	4.1	.3	2.52
고등학생	633	59.4	34.3	5.7	.6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마지막으로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는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24.2%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 4명 중 1명 정도는 스마트폰으로 인해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표 62> 참조).

<표 62> 스마트폰 의존 -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05	38.2	37.6	21.1	3.1	-
전국 ^a	-	25.1	43.3	26.6	5.0	-
남	615	43.6	34.3	18.9	3.3	14.95**
여	678	33.5	40.7	23.0	2.8	
일산 동구	512	38.9	37.9	19.5	3.7	4.77
일산 서구	410	39.5	37.3	21.2	2.0	
덕양구	383	35.8	37.6	23.2	3.4	
중학생	657	44.4	37.1	16.1	2.3	31.28***
고등학생	633	31.8	38.4	26.2	3.6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의 수치는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의 청소년(10세~19세) 자료를 인용함

특히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앞에서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수행에 어려움을 경험하는 비율이 높았으며(남학생 22.2%, 여학생 25.8%),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경우가 더 높았다(중학생 18.4%, 고등학생 29.8%). 이러한 결과는 스마트폰 과의존과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중학생들 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4) 가정생활

(1) 부모님과과의 활동

본 조사에서는 청소년들이 최근 1년 동안 주요 활동들을 얼마나 자주 부모와 함께 하는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부모와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이 자신의 고민에 대한 대화를 부모와 얼마나 자주하는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부모와 자신의 고민에 대한 대화를 거의 나누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30.1%로 약 3명 중 1명 정도는 부모와 자신의 고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3> 참조). 또한 월 1~3회로 응답한 비율이 29.8%였으며, 부모와 자신의 고민에 대해 주 1회 이상 대화를 나누는 비율은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에서는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비율이 높게 나타난 반면, 매일 대화하는 경우는 고양시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났다.

<표 63>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구 분	N(명)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χ^2
고양시	1,352	30.1	29.8	19.8	7.8	12.4	-
전국	-	25.9	38.8	24.2	5.9	5.3	-
남	641	35.7	33.2	17.9	5.9	7.2	56.64***
여	696	24.1	26.9	21.7	9.7	17.5	
일산 동구	532	31.0	29.7	19.9	7.1	12.2	6.77
일산 서구	417	33.1	28.5	18.2	7.4	12.7	
덕양구	403	25.8	31.3	21.3	9.2	12.4	
중학생	671	36.7	24.4	19.4	8.9	10.6	40.36***
고등학생	662	22.8	35.0	20.5	6.9	14.7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 고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정도를 성별에 따라 비교해보면, 대화를 나누지 않거나 나누더라도 월 1~3회라고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나는 반면(남학생 68.9% 여학생 51%), 주 1회 이상 대화를 나누는 비율은 여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남학생 31.1%, 여학생 49%).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대화를 거의하지 않거나 월 1~3회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1.1%인 반면, 고등학생들은 57.8%로 중학생들보다 약간 낮은 반면, 주1회 이상

인 비율은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생활에 대해 부모님과 대화를 하는 비율은 자신의 고민에 대해 대화를 하는 경우보다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민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69.9%인 데 비해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비율은 87.3%로 상당수의 청소년들이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부모와 대화를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표 64> 참조). 전국 청소년들과 비교해보면, 매일 대화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에게서 높게 나타난 반면, 상대적으로 적은 횟수에서는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에서 해당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았으나, 성별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주 1회 이상 55.9%)보다는 여학생들이(주 1회 이상 73.7%) 부모와 더 자주 학교생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64>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구 분	N(명)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χ^2
고양시	1,348	12.7	22.3	26.3	12.8	25.8	-
전국	-	16.3	29.8	28.1	9.2	9.1	-
남	639	16.9	27.2	27.9	11.7	16.3	80.20***
여	694	8.4	17.9	24.6	14.1	35.0	
일산 동구	530	14.5	22.6	25.1	12.1	25.7	5.35
일산 서구	417	12.7	22.8	26.6	12.2	25.7	
덕양구	401	10.2	21.4	27.7	14.5	26.2	
중학생	669	13.9	20.3	25.4	14.9	25.4	9.10
고등학생	690	10.9	24.2	27.0	11.1	26.8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 책이나 TV, 영화 등에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비율은 79.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5> 참조). 특히 주 1~3회 대화를 나눈다고 응답한 비율이 27.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월 1~3회가 25.9%를 차지하였다. 전국 청소년들과 비교해보면, 앞서 고민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에서와 동일한 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집단별로 차이를 살펴보면,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부모와 더 자주 대화를 나누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65>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책, TV, 영화 등에 대한 대화(%)

구 분	N(명)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χ^2
고양시	1,347	20.7	25.9	27.3	13.6	12.5	-
전국	-	27.0	36.4	24.8	6.8	5.0	-
남	640	23.9	29.2	24.8	13.3	8.8	28.96***
여	692	17.6	22.7	29.8	13.9	16.0	
일산 동구	531	23.0	25.8	27.9	11.1	12.2	12.55
일산 서구	415	22.4	23.6	26.7	14.5	12.8	
덕양구	401	16.0	28.4	27.2	16.0	12.5	
중학생	669	21.4	26.5	27.4	12.4	12.4	1.99
고등학생	659	19.7	25.2	27.6	14.7	12.7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 선거 등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를 나누는 비율을 살펴보면, 거의 대화를 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1.8%로 자신의 고민에 대한 대화에서 나타난 비율보다 약 10%p 정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청소년들이 부모와 대화를 나눔에 있어 대화 주제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표 66> 참조). 또한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에서 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로는 우선 앞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여학생들이 부모와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해 대화를 나누는 비율이 남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며, 지역별로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의 순으로 대화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고, 학교급별로는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경우에 부모와 정치, 사회적 주제에 대해 대화를 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표 66>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

구 분	N(명)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χ^2
고양시	1,348	41.8	26.7	18.0	7.3	6.2	-
전국	-	62.0	25.0	9.3	2.1	1.5	-
남	640	46.1	24.4	15.6	7.8	6.1	12.42*
여	694	37.6	29.0	20.0	6.9	6.5	
일산 동구	530	45.5	24.2	16.8	7.2	6.4	18.24*
일산 서구	417	44.4	24.2	17.5	7.0	7.0	
덕양구	401	34.2	32.7	20.0	8.0	5.2	
중학생	670	45.5	26.9	14.8	6.7	6.1	12.87*
고등학생	660	37.9	26.5	21.1	8.0	6.5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 여가활동을 함께한 비율을 살펴보면, 거의 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16.8%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비교적 낮은 편이었으며, 월 1~3회가 31%, 주 1~3회가 27.1%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앞서 고민, 학교생활 등의 경우에서와 유사한 양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67> 참조).

<표 67>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여가 활동(%)

구 분	N(명)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χ^2
고양시	1,350	16.8	31.0	27.1	10.8	14.3	-
전국	-	19.2	41.4	26.5	7.9	5.0	-
남	642	18.5	29.1	29.0	10.9	12.5	9.11
여	693	14.6	32.6	25.8	10.7	16.3	
일산 동구	530	18.5	32.8	25.8	9.4	13.4	11.82
일산 서구	417	16.3	25.7	29.5	12.5	16.1	
덕양구	403	15.1	34.0	26.3	10.9	13.6	
중학생	670	14.8	27.3	29.0	12.2	16.7	17.30**
고등학생	661	18.2	34.8	25.7	9.2	12.1	

* $p < .05$, ** $p < .01$, *** $p < .001$

부모와 여가활동을 함께하는 정도에 있어 성별 및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학교급별 차이에서는 중학생들의 경우 주 1회 이상 부모와 여가활동을 함께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7.9%인 반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47%로 10%p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와 저녁식사를 같이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매일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3.7%로 가장 높았으며, 거의 하지 않거나 월 1~3회라고 응답한 비율은 15.8%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68> 참조). 전국 청소년들과 비교해 보면, 부모와 매일 저녁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에 훨씬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이 상대적으로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은데 비해,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비교적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중학생들의 경우 부모와 매일 함께 저녁식사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51.9%였으나,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5.8%로 중학생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에 비해 학교 방과 후에도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저녁식사를 할 시간적인 여유를 갖지 못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68> 부모님과 함께한 활동 - 저녁식사(%)

구 분	N(명)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χ^2
고양시	1,351	8.3	7.7	20.9	19.5	43.7	-
전국	-	4.5	11.6	32.9	24.0	27.0	-
남	642	8.1	7.2	20.6	19.9	44.2	.57
여	694	8.1	8.2	20.7	19.3	43.7	
일산 동구	531	9.6	8.3	19.4	19.2	43.5	16.50*
일산 서구	417	9.4	6.5	18.5	18.0	47.7	
덕양구	403	5.5	8.2	25.3	21.3	39.7	
중학생	670	7.9	6.3	15.5	18.4	51.9	41.84***
고등학생	662	8.3	9.1	26.0	20.8	35.8	

* $p < .05$, ** $p < .01$, *** $p < .001$

(2) 부모님과과의 관계

다음으로 본 조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주중에 부모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를 살펴보았다. 먼저 대화시간을 포함하여 매일 아버지와 함께 하는 시간을 살펴보면, 30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9.2%로 가장 많았으며, 1시간 미만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5.2%,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2.3%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69> 참조).

<표 69>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

구 분	N(명)	거의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χ^2
고양시	1,330	6.7	29.2	25.2	16.5	22.3	-
전국	-	6.2	46.6	24.5	9.2	7.4	-
남	633	6.0	29.4	28.1	15.0	21.5	7.01
여	682	6.9	29.2	22.4	18.0	23.5	
일산 동구	525	6.1	30.5	25.5	14.9	23.0	6.62
일산 서구	405	8.1	29.9	22.5	17.5	22.0	
덕양구	400	6.0	27.0	27.5	17.8	21.8	
중학생	660	6.7	29.2	23.2	15.9	25.0	6.41
고등학생	651	6.1	29.3	27.3	17.2	20.0	

* $p < .05$, ** $p < .01$, *** $p < .001$

이를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에서 성별, 지역

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않음으로써 의미 있는 해석이 필요한 수준의 집단 간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어머니와 함께한 시간의 경우에는 2시간 이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0.7%로 가장 높았으며, 1시간 미만이 23.3%, 2시간 미만이 20.3%로 나타남으로써 아버지와 보다는 어머니와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0> 참조). 또한 전국 청소년들과의 비교에서도 아버지와 함께한 시간에서와 마찬가지로 2시간 이상 어머니와 함께 한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에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에서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2시간 이상 어머니와 함께 하는 비율이 남학생의 경우에는 35%이나 여학생의 경우는 46.4%로 10%p 이상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70>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

구 분	N(명)	거의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χ^2
고양시	1,359	2.8	12.9	23.3	20.3	40.7	-
전국	-	1.4	23.2	35.5	19.1	18.3	-
남	642	3.7	14.5	25.4	21.3	35.0	22.09***
여	702	1.6	11.4	21.8	18.8	46.4	
일산 동구	535	3.6	13.3	24.3	19.6	39.3	5.20
일산 서구	419	2.1	12.4	24.3	19.1	42.0	
덕양구	405	2.5	12.8	21.0	22.5	41.2	
중학생	673	3.0	12.2	21.1	21.0	42.8	5.98
고등학생	667	2.2	13.6	25.8	19.0	39.3	

* $p < .05$, ** $p < .01$, *** $p < .001$

부모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돌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2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우선 학교 또는 학원 수업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는 문항에 대하여 91.4%의 청소년들이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으며(<표 71>),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는 문항에 대하여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96.5%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표 72>), 본 조사에 참여한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 부모로부터 방임을 경험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조사 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집단 간 차이를 살펴보면,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는 문항에서는 성별에 따라, 아파도 내버려 둔 적이 있다는 문항에서는 학교급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나, 그러한 차이는 ‘전혀 그렇지 않다’는 응답과 ‘그렇지 않은 편이다’라는 응답에서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표 71> 부모 관심 -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3	57.7	33.7	6.5	2.1	-
전국	-	63.3	30.5	5.0	1.2	-
남	643	51.5	39.0	6.8	2.6	20.44***
여	705	63.4	28.8	6.1	1.7	
일산 동구	536	59.3	31.0	7.1	2.6	8.79
일산 서구	420	59.3	34.0	4.5	2.1	
덕양구	407	54.1	36.9	7.6	1.5	
중학생	675	60.9	31.0	5.9	2.2	5.74
고등학생	670	54.6	36.3	7.0	2.1	

* $p < .05$, ** $p < .01$, *** $p < .001$

<표 72> 부모 관심 -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7	83.0	13.5	2.6	1.0	-
전국	-	74.7	22.0	2.6	0.7	-
남	664	82.8	13.8	2.6	.8	1.13
여	708	83.3	13.1	2.3	1.3	
일산 동구	537	83.1	13.4	2.2	1.3	1.92
일산 서구	422	82.2	14.5	2.6	.7	
덕양구	408	83.6	12.5	2.9	1.0	
중학생	678	86.0	10.8	1.9	1.3	10.39*
고등학생	670	80.4	15.8	3.0	.7	

* $p < .05$, ** $p < .01$, *** $p < .001$

(3) 가정생활 만족도

본 조사에서는 부모와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얼마나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그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만족하는 편이거나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9.6%로 10명 가운데 9명 정도가 가정생활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과 비교해보면, 긍정 응답의 비율이 95%로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양시 청소년들의 가정생활 만족도에 대한 응답 분포는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로도 유사하게 나타남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3> 가정 생활 만족도(%)

구 분	N(명)	전혀 만족하지 않다	만족하지 않은 편이다	만족하는 편이다	매우 만족한다	χ^2
고양시	1,339	1.8	8.6	47.9	41.7	-
전국	-	0.5	4.5	72.4	22.6	-
남	626	2.2	8.0	48.2	41.5	2.28
여	700	1.3	9.1	47.6	42.0	
일산 동구	526	1.5	8.7	47.3	42.4	1.42
일산 서구	413	1.9	8.0	49.9	40.2	
덕양구	400	2.0	9.0	46.8	42.3	
중학생	663	1.5	9.0	48.0	41.5	.42
고등학생	660	1.8	8.3	47.7	42.1	

* p < .05, ** p < .01, *** p < .001

(4) 가족관

청소년들이 결혼 및 가족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우선 결혼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해 결혼을 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45%,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응답한 비율이 55%로 나타났다(<표 74> 참조). 전국 청소년들과 비교해보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고양시 청소년들은 45%, 전국 청소년들은 51%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표 74> 가족관 -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59	22.6	32.5	32.4	12.6	-
전국	-	9.6	39.4	42.8	8.2	-
남	644	14.1	27.5	39.4	18.9	105.30***
여	702	29.9	37.3	25.9	6.8	
일산 동구	532	26.3	30.5	31.0	12.2	9.13
일산 서구	421	18.5	33.7	33.7	14.0	
덕양구	406	21.9	33.7	32.8	11.6	
중학생	676	23.2	29.9	35.7	11.2	9.93*
고등학생	666	21.3	35.3	29.3	14.1	

* p < .05, ** p < .01, *** p < .001

이 문항에 대한 응답 분포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학생들의 경우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58.3%로 절반 이상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32.7%로 1/3 정도만이 결혼을 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고 2/3 정도는 결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거나 그렇지 않은 편이라고 응답하였다.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4.8%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약 2/3 정도는 결혼을 하더라도 자녀를 갖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5> 참조).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긍정 응답 비율이 46.1%로 고양시 청소년들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비율이 78.1%로 남학생들에(51.4%)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었으며,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자녀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중학생 60.6%, 고등학생 68.9%).

<표 75> 가족관 -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56	9.7	25.5	42.0	22.8	-
전국	-	11.2	42.7	38.8	7.3	-
남	639	14.7	34.0	40.1	11.3	138.54***
여	704	5.1	17.8	43.9	33.2	
일산 동구	530	10.9	23.4	39.6	26.0	15.91*
일산 서구	420	11.4	27.4	42.4	18.8	
덕양구	406	6.2	26.4	44.8	22.7	
중학생	673	11.9	27.5	39.8	20.8	12.53**
고등학생	667	7.5	23.5	44.2	24.7	

* $p < .05$, ** $p < .01$, *** $p < .001$

마지막으로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것에 대해 응답자의 89.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대부분의 청소년들이 가사 분담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6> 참조). 이러한 응답 유형은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사 분담에 관한 남학생과 여학생의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가사 분담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응답한 남학생들의 비율은 85.1%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93%인 것으로 나타나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가사분담의 당연성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학교급에 따른 차이의 경우를 살펴보면, 84.3%가 가사분담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94.4%가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이 성장하면

서 가정 내에서 전통적인 성역할에 따른 역할 분담보다는 가사 전반에서 남성과 여성이 비교적 동등하게 참여하는 것을 선호하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표 76> 가족관 - 맞벌이 시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53	3.5	7.2	34.4	54.9	-
전국	-	1.1	8.6	49.8	40.5	-
남	639	4.5	10.3	42.6	42.5	80.26***
여	702	2.4	4.6	26.5	66.5	
일산 동구	530	4.0	8.3	34.5	53.2	3.19
일산 서구	419	3.3	6.2	33.2	57.3	
덕양구	404	3.0	6.9	35.4	54.7	
중학생	670	4.9	10.7	33.6	50.7	37.32***
고등학생	666	1.8	3.8	34.5	59.9	

* $p < .05$, ** $p < .01$, *** $p < .001$

(5) 사교육

본 조사에서는 최근 1년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 사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이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85.4%가 사교육을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성별이나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학교급별로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참여 경험이 조금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77> 참조).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사교육 참여 비율은 10명 가운데 8명이 조금 넘는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표 77> 최근 1년간 사교육 경험

구 분	N	있다(%)	χ^2
고양시	1,255	85.4	-
전국	-	82.9	-
남	589	86.4	.96
여	656	84.5	
일산 동구	468	86.1	2.05
일산 서구	403	83.4	
덕양구	384	86.7	
중학생	661	87.6	5.28*
고등학생	582	83.0	

* $p < .05$, ** $p < .01$, *** $p < .001$

5) 친구 및 학교생활

(1) 학교생활 만족도

본 조사에서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학교생활 만족도 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모두 5문항을 포함하였는데, 우선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 분포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57.3%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5명 가운데 약 3명 정도가 학교에서의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78> 참조). 그러나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71.8%)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 가운데 학교 수업시간이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54.5%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59.9%로 상대적으로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역이나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78> 학교생활 만족도 - 수업시간이 재미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40	11.2	31.5	48.6	8.7	-
전국	-	1.6	26.6	62.7	9.1	-
남	633	13.3	32.2	44.7	9.8	10.37*
여	694	9.1	31.0	52.0	7.9	
일산 동구	523	12.6	31.7	45.7	9.9	10.38
일산 서구	414	10.9	34.5	46.4	8.2	
덕양구	403	9.7	28.0	54.6	7.7	
중학생	663	11.0	32.1	48.0	8.9	.29
고등학생	660	10.9	31.1	49.4	8.6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학교가 자신들의 의견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9%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으나, 앞의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 청소년들의 긍정 응답 비율(71.6%)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이었다.

집단별로 살펴보면, 성별 및 지역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의 경우 학교가 의견을 매우 잘 반영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7.8%인데 비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4.0%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덕양구의 경우에는 59.7%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일산 동구의

경우는 46.1%, 일산 서구의 경우는 42.1%로 덕양구와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나 본 조사가 학교를 중심으로 표본을 선정하였음을 감안하면, 이러한 결과는 조사 대상 학교의 특성을 일부 반영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표 79>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우리 의견을 잘 반영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37	17.9	33.2	43.2	5.8	-
전국	-	1.9	26.4	57.1	14.5	-
남	632	18.0	32.3	41.9	7.8	8.57*
여	692	17.6	34.0	44.4	4.0	
일산 동구	521	18.8	35.1	40.3	5.8	32.74***
일산 서구	414	22.7	35.3	37.0	5.1	
덕양구	402	11.7	28.6	53.2	6.5	
중학생	661	19.1	31.6	42.1	7.3	7.42
고등학생	659	16.4	34.9	44.3	4.4	

* $p < .05$, ** $p < .01$, *** $p < .001$

<표 80>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38	21.8	37.1	35.9	5.2	-
전국	-	1.7	19.2	63.2	15.9	-
남	633	22.3	34.3	36.3	7.1	11.11*
여	692	21.4	39.6	35.5	3.5	
일산 동구	523	28.7	37.7	28.9	4.8	44.67***
일산 서구	413	21.5	38.5	35.1	4.8	
덕양구	402	13.2	35.1	45.8	6.0	
중학생	662	20.4	34.3	38.2	7.1	15.01**
고등학생	659	23.1	40.1	33.5	3.3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41.1%만이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절반이 넘는 청소년들은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표 80> 참조). 이에 비해 전국 청소년들의 79.1%는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고양시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를 자세히 살펴보면, 지역별 분포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덕양구의 경우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51.8%로 나타난 반면, 일산 서구의 경우는 39.9%, 일산 동구의 경우는 33.7%로 덕양구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들의 45.3%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라고 응답한 반면 고등학생들은 36.8% 정도만이 학교가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를 갖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학교급이 올라갈수록 학교의 면학 분위기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학교 교칙의 엄격성에 대한 평가에서는 응답자의 33.6%가 긍정적으로 평가함으로써 3명 중 1명 정도만이 학교 교칙이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머지 2명 정도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1 참조). 반면에 전국의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64.2%가 학칙이 엄격하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학칙의 엄격성에 대한 평가에서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의 경우 일산 서구의 경우가 48.1%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일산 동구가 32.1%, 덕양구가 21%로 지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로 비교해 보면, 중학생의 경우 학교 교칙이 엄격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40.5%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26.8%만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1> 학교생활 만족도 - 우리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36	21.0	45.4	25.4	8.2	-
전국	-	3.3	32.5	52.8	11.4	-
남	631	19.5	45.5	26.3	8.7	1.75
여	692	22.1	45.4	24.7	7.8	
일산 동구	523	18.7	49.1	25.0	7.1	117.27***
일산 서구	412	9.5	42.5	36.2	11.9	
덕양구	401	35.7	43.4	15.0	6.0	
중학생	661	14.7	44.8	29.2	11.3	46.21***
고등학생	658	26.7	46.5	21.6	5.2	

* $p < .05$, ** $p < .01$, *** $p < .001$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러운가에 대한 문항에서 응답자의 78.7%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88.3%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82> 참조). 학교생활에 대한 만족도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성별, 지역별, 학교급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표 82> 학교생활 만족도 -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생활이 만족스럽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38	7.0	14.3	59.0	19.7	-
전국	-	0.6	11.1	75.0	13.3	-
남	633	7.6	12.3	58.8	21.3	6.15
여	692	5.9	16.2	59.4	18.5	
일산 동구	523	7.6	15.3	59.3	17.8	10.06
일산 서구	413	8.2	15.7	56.4	19.6	
덕양구	402	5.0	11.4	61.2	22.4	
중학생	662	6.6	14.0	58.3	21.0	1.14
고등학생	659	7.0	14.6	59.8	18.7	

* $p < .05$, ** $p < .01$, *** $p < .001$

(2) 학교 폭력 경험

학교 폭력은 학교생활에서 결코 간과할 수 없는 주제이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도 학교에서 폭력을 당하는 경험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는데, 우선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에 대한 문항의 경우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7.4%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년에 1~2회 정도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13.8%, 한달에 1~2회 이상인 비율은 8.9%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3> 참조). 전국 청소년들의 경험에 비해 고양시 청소년들이 경험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비율이 조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한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를 살펴보면, 남학생들 가운데 해당 경험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73.5%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80.9%로 남학생들의 경우가 조금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급별로 살펴보면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해당 경험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중학교 시기에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하는 경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표 83> 학교폭력 경험 -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χ^2
고양시	1,357	77.4	13.8	3.8	2.0	3.1	-
전국 ^a	-	86.6	8.2	2.5	1.3	1.4	-
남	641	73.5	15.8	3.0	2.8	5.0	26.02***
여	703	80.9	11.8	4.6	1.3	1.4	
일산 동구	534	75.3	15.4	4.7	1.1	3.6	14.09
일산 서구	420	75.7	14.3	3.8	3.3	2.9	
덕양구	403	81.9	11.2	2.5	1.7	2.7	
중학생	677	71.9	16.4	5.2	2.2	4.3	23.81***
고등학생	663	82.5	11.3	2.4	1.8	2.0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다음으로 폭행이나 구타를 당한 경험에 대한 문항의 경우 해당 경험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95.7%였으며, 1년에 1~2회가 2.1%, 한달에 1회 이상이 2.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조사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84> 참조). 폭행이나 구타 경험의 경우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남학생들 가운데 구타 경험을 당한 비율이 7.3% 정도인 것에 비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학교에서의 폭행이나 구타와 같은 행위는 여학생들보다는 남학생들 사이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84> 학교폭력 경험 -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χ^2
고양시	1,357	95.7	2.1	1.3	.4	.5	-
전국 ^a	-	94.4	3.3	.9	.7	.6	-
남	642	92.7	3.4	2.0	.9	.9	26.67***
여	702	98.3	.9	.7	.0	.1	
일산 동구	534	96.1	1.9	.7	.4	.9	11.54
일산 서구	419	94.5	3.3	1.4	.5	.2	
덕양구	404	96.3	1.0	2.0	.5	.2	
중학생	676	94.2	2.8	1.8	.3	.9	9.74*
고등학생	664	97.0	1.4	.9	.6	.2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한 경험의 경우 그런 적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4.2%였으며, 이러한 수치는 폭력이나 구타의 경우보다는 약간 낮은 수준으로서 폭력이나 구타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85> 참조). 따돌림 피해 경험에서의 성별 및 지역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중학생의 경우에는 따돌림 피해를 당한 경험이 7.8%인 반면, 고등학생의 경우에는 3.9%로 중학생 시기에 더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85> 학교폭력 경험 - 따돌림을 당함(%)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χ^2
고양시	1,358	94.2	3.6	.9	.7	.7	-
전국 ^a	-	95.3	2.9	.8	.4	.6	-
남	642	94.1	3.3	1.1	.8	.8	1.45
여	703	94.2	4.0	.7	.6	.6	
일산 동구	534	94.4	3.7	.9	.6	.4	7.20
일산 서구	420	95.7	2.1	.7	.5	1.0	
덕양구	404	92.3	5.0	1.0	1.0	.7	
중학생	677	92.2	5.2	.9	.9	.9	11.03*
고등학생	664	96.1	2.1	.9	.5	.5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표 86> 학교폭력 경험 -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χ^2
고양시	1,358	97.1	1.5	.5	.4	.5	-
전국 ^a	-	98.0	1.2	.4	.1	.2	-
남	642	96.0	2.0	.9	.3	.8	8.30
여	703	98.2	1.0	.1	.4	.3	
일산 동구	534	97.6	.7	.7	.4	.6	8.57
일산 서구	420	96.9	2.1	.2	.0	.7	
덕양구	404	96.8	1.7	.5	.7	.2	
중학생	677	96.8	1.9	.4	.4	.4	2.21
고등학생	664	97.4	1.1	.6	.3	.6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의 경우에는 해당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7.1%로 고양시에 소재한 학교에서는 돈이나 물건을 갈취하는 행위가 그리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청소년들에 대한 조사결과와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집단 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표 86> 참조).

학교에서 협박을 당한 경험의 경우도 돈이나 물건을 빼앗긴 경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그 발생 비율이 비교적 낮은 수준이었는데, 이에 대해 해당 경험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7%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별,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표 87> 학교폭력 경험 - 협박을 당함(%)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χ^2
고양시	1,358	97.0	1.5	.4	.6	.4	-
전국 ^a	-	97.6	1.5	.4	.3	.3	-
남	642	96.4	2.0	.5	.6	.5	1.77
여	703	97.4	1.1	.4	.6	.4	
일산 동구	534	97.0	1.5	.0	.9	.6	14.67
일산 서구	420	96.4	2.4	.2	.5	.5	
덕양구	404	97.5	.7	1.2	.2	.2	
중학생	677	96.2	2.1	.3	.9	.6	5.54
고등학생	664	97.7	1.1	.6	.3	.3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표 88> 학교폭력 경험 -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당함(%)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χ^2
고양시	1,358	93.2	3.8	.9	.7	.5	-
전국 ^a	-	97.1	1.4	.6	.4	.5	-
남	642	93.0	3.4	1.2	.8	1.6	2.38
여	703	93.2	4.1	.6	.6	1.6	
일산 동구	534	91.4	5.1	1.3	.4	1.9	8.35
일산 서구	420	94.5	2.6	.7	1.0	1.2	
덕양구	404	94.1	3.2	.5	.7	1.5	
중학생	677	90.7	4.7	1.3	.9	2.4	13.27*
고등학생	664	95.5	2.9	.5	.5	.8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다음으로 학교에서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을 당한 경험의 경우 93.2%가 해당 경험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일년에 1~2회 정도라고 응답한 비율이 3.8%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88> 참조). 이는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약간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희롱이나 성추행 경험의 경우 성별 및 지역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 미치지 않았으나, 학교급별로 중학생의 경우 해당 경험을 당한 적이 있다는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써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학교에서의 강제적인 심부름, 소위 서들이 되는 경험과 관련해서는 해당 경험이 한번도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98.1%로 매우 높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성별,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표 89> 참조).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교에서 빵서들과 같은 강제적인 심부름을 경험하는 비율은 매우 낮은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다만 학교폭력과 관련한 경험을 해석함에 있어 한 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것은 이 조사가 학교에서 교사의 감독 하에 진행되었다는 것과 학교폭력 경험이 객관적인 자료가 아닌 학생들의 응답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본 조사 결과를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89> 학교폭력 경험 - 강제적인 심부름(%)

구 분	N(명)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χ^2
고양시	1,357	98.1	1.0	.2	.4	.2	-
전국 ^a	-	98.5	.8	.3	.2	.2	-
남	641	97.7	.9	.3	.8	.3	4.07
여	703	98.4	1.1	.1	.1	.1	
일산 동구	534	97.9	1.3	.2	.4	.2	7.94
일산 서구	420	99.0	.7	.0	.0	.2	
덕양구	403	97.3	1.0	.5	1.0	.2	
중학생	677	98.2	1.0	.1	.3	.3	1.38
고등학생	663	97.9	1.1	.3	.6	.2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3) 인권 교육 경험

최근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등으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인권교육 경험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64.5%였으며, 적어도 1회 이상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비율은 35.5%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의 2배 정도인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인권교육의 필요성을 다시금 보여주고 있다(<표 90> 참조). 또한 전국 청소년들의 경험과 비교해 볼 때, 고양시 청소년들의 인권교육 경험이 상당히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표 90> 인권교육 경험 - (%)

구 분	N(명)	없음	1회	2회	3회	4회	5회 이상	χ^2
고양시	1,008	64.5	6.3	10.7	7.8	2.8	7.9	-
전국 ^a	-	30.0	14.1	19.9	16.2	5.2	14.6	-
남	449	67.3	5.6	9.6	8.7	2.7	6.2	6.36
여	553	62.2	6.9	11.6	7.2	2.7	9.4	
일산 동구	386	79.5	3.6	7.8	3.1	1.8	4.1	66.34***
일산 서구	327	56.6	8.0	11.6	10.4	3.1	10.4	
덕양구	295	53.6	7.8	13.6	11.2	3.7	10.2	
중학생	586	67.4	8.0	10.1	7.5	2.9	4.1	36.63***
고등학생	416	60.1	3.8	11.8	8.4	2.4	13.5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인권교육 경험에서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 살펴보면 일산 서구, 덕양구, 일산 동구의 순으로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인권교육 경험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권교육을 보다 강화하여야 함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인권교육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나마 받은 인권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도 인권교육의 효과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본 조사에서는 인권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받은 인권교육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는데, 응답자의 63.1%가 도움이 되는 편이거나 매우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표 91 참조). 즉 응답자의 약 2/3 정도는 인권교육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었는데, 전국 청소년들의 경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어떤 형태로든 인권교육을 받는 것이 인권에 대한 생각을 확장하고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이에 맞추어 행동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인권교육을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91> 인권교육 도움 정도(%)

구 분	N(명)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도움이 되는 편이다	매우 도움이 된다	χ^2
고양시	382	12.0	24.9	56.3	6.8	-
전국 ^a	-	6.0	21.6	61.3	11.1	-
남	162	13.6	25.3	51.2	9.9	5.71
여	216	10.6	24.5	60.2	4.6	
일산 동구	82	17.1	26.8	48.8	7.3	4.54
일산 서구	158	12.0	23.4	58.9	5.7	
덕양구	142	9.2	25.4	57.7	7.7	
중학생	201	10.0	22.4	57.7	10.0	8.47*
고등학생	177	14.1	27.7	54.8	3.4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4) 인권에 대한 태도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이 인권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는데, 우선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얼마나 동의하는지를 질문하였다. 그 응답 결과를 살펴보면, 응답자의 23.6%는 이 주장에 대해 동의한 반면, 76.4%는 부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결정능력이 부족해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전국 청소년들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성별,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표 92> 참조).

<표 92> 인권에 대한 태도 - 결정능력 부족으로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8	27.6	48.8	21.6	2.0	-
전국 ^a	-	27.6	42.8	25.8	3.8	-
남	647	27.4	45.9	24.4	2.3	7.65
여	709	26.9	52.2	19.0	1.8	
일산 동구	536	28.4	48.9	21.3	1.5	6.60
일산 서구	423	30.3	47.0	20.1	2.6	
덕양구	409	23.7	50.6	23.5	2.2	
중학생	681	27.9	46.8	22.9	2.3	3.50
고등학생	671	26.5	51.6	20.1	1.8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다음으로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7.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보다도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표 93> 참조). 이러한 결과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비율이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남학생들의 경우 사회참여의 필요성에 동의하는 비율이 83%인데 비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91%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또한 중학생들(83.4%) 보다는 고등학생들이(91.2%) 사회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93> 인권에 대한 태도 -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8	4.2	8.6	54.1	33.1	-
전국 ^a	-	4.0	12.2	57.0	26.8	-
남	647	6.0	11.0	53.3	29.7	22.70***
여	710	2.4	6.6	54.8	36.2	
일산 동구	536	4.5	8.6	53.5	33.4	8.15
일산 서구	424	4.0	11.3	52.6	32.1	
덕양구	408	3.9	5.9	56.4	33.8	
중학생	682	4.8	11.7	51.0	32.4	19.41***
고등학생	671	3.1	5.7	57.2	34.0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표 94> 인권에 대한 태도 - 모임이나 조직이 학교문제 해결에 도움이 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6	7.7	14.6	54.7	23.1	-
전국 ^a	-	4.5	14.3	64.0	17.2	-
남	646	10.8	17.8	51.1	20.3	32.29***
여	709	4.8	11.6	58.0	25.7	
일산 동구	535	7.9	15.0	54.8	22.4	6.13
일산 서구	423	8.7	16.5	52.7	22.0	
덕양구	408	6.4	12.0	56.6	25.0	
중학생	680	7.5	15.1	53.2	24.1	1.43
고등학생	671	7.5	14.0	56.3	22.2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77.8%로 약 4명 가운데 3명 정도는 이 주장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4> 참조).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직을 통한 행동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학교에서의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남학생들은 83%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91%가 동의함으로써 여학생들이 조직 행동의 필요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94.4%는 긍정적으로 답변함으로써 의사표현의 권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 유형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특히 남학생들에(91%) 비해 여학생들이(97.8%)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95> 참조).

<표 95> 인권에 대한 태도 -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8	2.6	3.0	36.0	58.4	-
전국 ^a	-	2.0	3.4	44.8	49.9	-
남	646	3.9	5.1	39.9	51.1	45.53***
여	711	1.3	1.0	32.5	65.3	
일산 동구	535	2.2	2.1	38.1	57.6	7.40
일산 서구	424	3.1	3.5	31.8	61.6	
덕양구	409	2.4	3.7	37.7	56.2	
중학생	681	2.6	3.4	33.5	60.5	4.65
고등학생	672	2.1	2.5	38.7	56.7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가정 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에 대해 응답자의 66.9%가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하였으며, 95.4%가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가정 형편에 따른 차별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청소년들의 응답 결과와도 매우 유사한 수준이었다(<표 96> 참조).

<표 96> 인권에 대한 태도 - 가정형편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8	2.8	1.8	28.5	66.9	-
전국 ^a	-	1.7	2.3	32.7	63.2	-
남	647	4.3	3.2	32.6	59.8	44.11***
여	710	1.3	.4	24.6	73.7	
일산 동구	536	2.4	1.9	28.9	66.8	7.18
일산 서구	423	3.1	1.7	24.3	70.9	
덕양구	409	2.9	2.0	32.3	62.8	
중학생	681	3.1	2.3	26.1	68.4	6.97
고등학생	672	2.1	1.2	31.0	65.8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또한 앞의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들(95.7%)보다는 여학생들이(98.3%) 이러한 생각에 동의하는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인권이나 차별에 대해 더 적극적인 생각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94.6%로 거의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에 동의하고 있었으며, 특히 여학생들의 경우는 97.3%가 이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97> 참조).

<표 97> 인권에 대한 태도 -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6	2.6	2.8	25.8	68.8	-
전국 ^a	-	2.3	3.8	32.3	61.6	-
남	646	4.0	4.3	31.7	59.9	53.13***
여	709	1.3	1.4	20.0	77.3	
일산 동구	536	2.4	3.0	26.3	68.3	6.71
일산 서구	422	3.1	1.9	22.5	72.5	
덕양구	408	2.5	3.4	28.4	65.7	
중학생	680	2.6	2.8	23.7	70.9	2.84
고등학생	671	2.2	2.8	27.6	67.4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인권에 대한 태도를 묻는 마지막 질문인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는 생각에 대해 92.8%가

그런 편이거나 매우 그렇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앞의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국 조사에서의 결과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8> 참조). 또한 앞의 문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은 남학생들 보다는 여학생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으며, 두 집단 간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표 98> 인권에 대한 태도 - 국내 거주 외국인도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고양시	1,365	3.4	3.7	32.2	60.6	-
전국 ^a	-	3.5	6.1	39.8	50.5	-
남	645	5.3	5.4	35.7	53.6	37.46***
여	709	1.7	2.1	29.1	67.1	
일산 동구	534	2.8	3.9	32.0	61.2	6.44
일산 서구	422	3.1	4.0	29.6	63.3	
덕양구	409	4.6	3.2	35.2	57.0	
중학생	680	3.1	3.7	30.7	62.5	1.71
고등학생	670	3.4	3.7	33.7	59.1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 아동·청소년 인권실태조사 통계에서 인용함

(5) 교우관계

청소년들의 교우관계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본인이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는 지에 대한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8.6%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99> 참조). 즉 고양시 청소년들은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남학생들의 경우 이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6.3%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9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중학생들의 경우 86.5% 정도인데 비해 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91.4%인 것으로 나타나 고등학생들이 교우관계에서 더 편안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⁸⁾.

8) 교우관계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은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사용된 문항을 사용하였는데, 해당 조사 결과가 제시되지 않아 본 조사 결과와의 비교는 실시하지 않았다.

<표 99> 교우관계 -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6	2.4	8.9	59.5	29.1	-
남	646	2.9	10.8	60.1	26.2	11.98**
여	709	1.6	7.2	59.2	32.0	
일산 동구	536	1.9	9.7	59.7	28.7	6.39
일산 서구	424	2.4	9.2	56.4	32.1	
덕양구	406	3.2	7.6	62.6	26.6	
중학생	681	2.9	10.6	55.4	31.1	13.67**
고등학생	670	1.3	7.3	63.9	27.5	

* $p < .05$, ** $p < .01$, *** $p < .001$

<표 100> 교우관계 - 고민을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8	2.5	7.2	50.3	40.0	-
남	647	3.6	10.5	53.3	32.6	47.51***
여	710	1.1	4.1	47.9	46.9	
일산 동구	537	3.0	6.0	52.7	38.4	6.78
일산 서구	424	2.1	7.3	47.2	43.4	
덕양구	407	2.2	8.8	50.4	38.6	
중학생	682	3.1	8.8	47.9	40.2	11.97**
고등학생	671	1.3	5.4	53.1	40.2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친구들이 자신의 고민을 기꺼이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앞의 문항에서보다 조금 높은 90.3%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85.9%)보다는 여학생들의(94.8%) 경우에, 그리고 중학생(88.1%)보다는 고등학생의(93.3%)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앞의 문항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표 100> 참조).

친구에게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5.8%로 앞의 두 문항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1> 참조). 또한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이 문항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앞의 문항에서와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01> 교우관계 -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7	3.4	10.8	51.6	34.2	-
남	647	4.8	11.4	53.5	30.3	16.17**
여	709	1.8	10.2	50.1	37.9	
일산 동구	536	3.7	11.4	50.7	34.1	4.05
일산 서구	424	2.8	10.1	50.0	37.0	
덕양구	407	3.7	10.6	54.5	31.2	
중학생	682	4.3	11.7	47.5	36.5	13.69**
고등학생	670	1.9	9.9	56.1	32.1	

* $p < .05$, ** $p < .01$, *** $p < .001$

<표 102> 교우관계 -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6	3.4	15.1	52.1	29.4	-
남	645	4.5	19.8	52.6	23.1	41.17***
여	710	2.1	10.7	52.1	35.1	
일산 동구	537	3.7	16.6	52.1	27.6	3.09
일산 서구	423	2.8	14.2	51.8	31.2	
덕양구	406	3.7	14.0	52.5	29.8	
중학생	681	4.1	17.0	48.5	30.4	11.98***
고등학생	670	2.1	13.1	56.1	28.7	

* $p < .05$, ** $p < .01$, *** $p < .001$

친구들이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주는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1.5%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의 문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남학생 보다는 여학생들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이 이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표 102> 참조).

마지막으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이고 있을 때 친구들이 격려해주고 용서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88.8% 다른 문항들과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이 문항에서도 앞의 문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의 경우에,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의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표 103> 참조). 이러한 결과는 교우관계에 있어서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이 더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마찬가지로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에게서 더욱 친밀한 교우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일관성 있게 보여주고 있다.

<표 103> 교우관계 -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8	2.7	8.4	55.0	33.8	-
남	647	3.9	12.4	53.9	29.8	40.62***
여	710	1.3	4.6	56.3	37.7	
일산 동구	537	3.2	8.4	54.9	33.5	4.85
일산 서구	424	1.9	9.2	53.8	34.9	
덕양구	407	2.9	7.6	56.3	33.2	
중학생	682	3.4	9.2	50.7	36.5	14.97**
고등학생	671	1.5	7.3	59.8	31.4	

* $p < .05$, ** $p < .01$, *** $p < .001$

(6) 교사와의 관계

교사와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친구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문항을 교사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질문하였다. 우선 교사로부터 자신이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을 살펴보면, 이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1.2%로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타난 88.6%보다는 17.4%p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4> 참조).

교사와의 관계에서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는 응답에서의 성별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즉 지역별로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의 순으로 긍정적인 응답의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긍정 응답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4> 교사와의 관계 -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7	9.4	19.5	53.9	17.3	-
남	645	8.4	18.3	54.4	18.9	3.54
여	711	10.0	20.4	53.7	15.9	
일산 동구	537	8.4	21.6	50.8	19.2	16.04*
일산 서구	423	11.6	21.0	51.3	16.1	
덕양구	407	8.4	15.0	60.7	16.0	
중학생	682	10.9	21.1	49.1	18.9	14.26**
고등학생	670	7.6	17.6	59.1	15.7	

* $p < .05$, ** $p < .01$, *** $p < .001$

교사가 자신의 고민을 기꺼이 들어줄 것인지에 대한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8.4%로 친구의 경우(90.3%)와 비교해 볼 때 11.9%p 정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랑과 보살핌을 받는지에 대한 문항과 비교해 보면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표 105> 참조).

교사가 고민을 들어 줄 것인지에 관한 문항에서의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의 순으로 긍정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경우 긍정 응답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차이는 앞의 문항에서 나타난 것과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표 105> 교사와의 관계 - 고민을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7	7.8	13.8	54.2	24.2	-
남	646	6.3	13.6	54.6	25.4	3.19
여	710	8.7	14.1	53.8	23.4	
일산 동구	537	7.3	13.0	54.6	25.1	16.39*
일산 서구	424	9.7	18.2	49.8	22.4	
덕양구	406	6.4	10.3	58.4	24.9	
중학생	682	9.4	16.0	49.4	25.2	16.29**
고등학생	670	5.8	11.6	59.0	23.6	

* $p < .05$, ** $p < .01$, *** $p < .001$

다음으로 교사에게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0.7%였으며, 앞의 두 문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친구관계에 대한 응답(85.8%)에 비해서는 21.1%p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6> 참조). 이 문항에 대한 응답에서는 성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학생들 가운데 교사에게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66.7%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는 55.9%로 여학생들의 교사에 대한 심리적 의존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앞 문항들에서와 마찬가지로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의 순으로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교사에게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06> 교사와의 관계 -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8	12.7	26.5	42.3	18.4	-
남	646	10.5	22.8	46.0	20.7	17.18**
여	711	14.5	29.7	39.4	16.5	
일산 동구	537	12.1	26.1	41.2	20.7	14.25*
일산 서구	424	15.6	29.7	40.1	14.6	
덕양구	407	10.6	23.8	46.2	19.4	
중학생	682	13.8	28.3	37.1	20.8	16.86**
고등학생	671	11.5	24.4	48.0	16.1	

* $p < .05$, ** $p < .01$, *** $p < .001$

교사가 자신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줄 것인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66.1%였으며, 앞의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항의 경우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었으나 친구관계에서의 동일 문항에 대한 응답(81.5%)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7> 참조).

<표 107> 교사와의 관계 -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준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7	10.0	23.8	47.7	18.4	-
남	645	8.1	20.6	50.4	20.9	15.38**
여	711	11.5	26.9	45.3	16.3	
일산 동구	536	10.1	23.5	46.5	20.0	19.17**
일산 서구	424	12.3	28.5	43.9	15.3	
덕양구	407	7.6	19.4	53.3	19.7	
중학생	681	12.2	25.7	41.3	20.9	25.02***
고등학생	671	7.6	21.9	54.2	16.2	

* $p < .05$, ** $p < .01$, *** $p < .001$

이 문항에 대한 응답의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에서의 성별 차이가 관찰되었는데, 교사가 자신의 일에 대해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남학생들의 경우에는 71.3%인 반면, 여학생들의 경우에는 61.6%에 그침으로써 여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앞의 3개 문항에서 나타난 양상과 동일하게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의 순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마지막 문항인 자신이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 교사가 격려해주고 용서해 줄 것인지에 대한 응답의 경우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은 76.9%로 다른 문항들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친구관계에서의 응답 비율(88.8%)에 비해서는 조금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108> 참조).

이 문항에서의 성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으며, 이 문항에서 나타난 지역별 및 학교급별 차이의 양상은 앞의 문항에서와 마찬가지로 덕양구, 일산 동구, 일산 서구의 순으로,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의 긍정 응답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선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 가운데 교사와의 관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비율이 높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별 차이의 경우에 대해서는 왜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보다 심도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학교폭력 관련 문항에 대한 응답 결과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본 조사의 대상이 학교를 중심으로 표집되었음을 감안하여 지역별 차이가 다소 학교간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108> 교사와의 관계 - 망설일 때 격려해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구 분	N(명)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χ^2
전체	1,366	8.6	14.5	52.2	24.7	-
남	644	7.3	13.2	53.3	26.2	4.87
여	711	9.6	15.8	51.2	23.5	
일산 동구	536	8.8	13.1	52.1	26.1	15.13*
일산 서구	424	9.7	19.3	48.8	22.2	
덕양구	406	7.4	11.3	55.9	25.4	
중학생	681	10.6	16.6	47.0	25.8	18.16***
고등학생	670	6.4	12.5	57.3	23.7	

* $p < .05$, ** $p < .01$, *** $p < .001$

(7)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 노출

마지막으로 본 조사에서는 생활환경에서 유해업소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문항들은 등하굣길과 집주변에서 PC방,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DVD방, 멀티방, 룸카페, 유흥/단란주점, 클럽 등의 업소들이 얼마나 많다고 느끼는지에 대해 질문하고 있는데, 우선 등하굣길에서의 노출 정도를 살펴보면,

조금 있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한 비율이 47.4%로 거의 절반 가까운 응답자들이 등하곳길에 앞서 언급한 유해업소들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조사에서 나타난 결과(49.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109> 참조). 또한 집주변에서의 노출 정도를 살펴보면 53%가 조금 있거나 매우 많다고 응답함으로써(<표 110> 참조) 고양시 청소년들의 경우 적어도 2명 가운데 1명 정도는 등하곳길이나 집주변에서 유해업소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국 조사에서의 결과(48.4%)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09> 유해업소 노출 - 등하곳길(%)

구 분	N(명)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χ^2
고양시	1,363	25.3	27.3	36.5	10.9	-
전국 ^a	-	21.3	28.8	39.4	10.4	-
남	645	25.7	25.9	37.4	11.0	1.53
여	707	24.8	28.9	35.5	10.9	
일산 동구	534	25.7	27.0	37.6	9.7	37.23***
일산 서구	422	16.8	28.0	40.5	14.7	
덕양구	407	33.7	27.0	30.7	8.6	
중학생	680	23.8	27.5	38.5	10.1	3.58
고등학생	668	26.6	27.5	34.1	11.7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인용

<표 110> 유해업소 노출 - 집 주변(%)

구 분	N(명)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χ^2
고양시	1,365	19.9	27.0	40.1	13.0	-
전국 ^a	-	23.0	28.6	37.8	10.6	-
남	644	21.1	28.0	36.5	14.4	7.23
여	710	18.6	26.2	43.4	11.8	
일산 동구	536	19.4	27.6	40.5	12.5	21.03**
일산 서구	422	14.7	29.6	39.8	15.9	
덕양구	407	26.0	23.3	39.8	10.8	
중학생	682	17.2	27.9	41.9	13.0	5.84
고등학생	668	22.3	26.3	38.5	12.9	

* $p < .05$, ** $p < .01$, *** $p < .001$

a 전국 단위 수치는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서 인용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 노출정도와 관련하여 성별 및 학교급별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으나, 지역별로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즉 등하곳길의 경

우 일산 서구 55.2%, 일산 동구 47.3%, 덕양구 39.3%가 유해업소가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집주변의 경우에는 일산 서구 55.7%, 일산 동구 53%, 덕양구 50.6%가 유해업소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차이를 바탕으로 지역의 유해환경 정도에 대해 논의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는 적절하지 않다. 왜냐하면, 이러한 응답 결과는 실제 유해업소의 분포가 아닌 응답자들의 인식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지역의 특성이라기보다는 조사 대상으로 선정된 학교의 지역적 특성과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지역적 차이보다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의 절반 가량은 일상생활에서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는 물론 청소년 고용 및 출입금지 업소들에 쉽게 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초점을 두어 유해환경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5. 조사결과 요약

여기서는 앞서 제시한 고양시 청소년의 일상생활 실태조사 결과를 4개 영역별로 정리·요약하에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건강 및 정서 영역은 주관적 안녕감, 운동, 식습관, 스트레스, 자아존중감, 흡연 및 음주 경험 등과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영역의 응답 결과에 대한 요약표는 <표 111>에 제시되어 있다. 주관적 안녕감의 경우 긍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중간 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부정적 정서의 경우에는 중간보다 낮은 수준이었으나 전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고양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주관적 안녕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긍정적 정서는 남학생들이 여학생들보다 높았고, 중학생들이 고등학생들보다 높았으나, 부정적 정서는 그 반대의 결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활동과 아침식사는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이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저녁식사를 하는 비율은 오히려 여학생들과 고등학생들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비율은 여학생들과 고등학생들에게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아존중감에 있어서는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들보다 더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흡연 및 음주 경험의 경우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중학생보다는 고등학생들의 유경험률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11> 건강과 정서 영역 결과 요약

구 분		고양시	성별	지역별	학교급
주관적 안녕감 ¹⁾	행복감	6.70	남 > 여	서구>동구, 덕양구	중 > 고
	근심	5.68	남 < 여	-	중 < 고
	우울	4.41	남 < 여	-	중 < 고
	삶의 만족도	6.50	남 > 여	서구>동구	중 > 고
	하는 일의 가치	6.34	남 > 여	서구>동구	중 > 고
운동 ²⁾	신체활동 여부	64.9%	남 > 여	서구>덕양구>동구	중 > 고
식습관 ³⁾	아침식사	67.5%	남 > 여	-	중 > 고
	점심식사	97.5%	-	-	-
	저녁식사	94.2%	남 < 여	-	-
스트레스 ⁴⁾	일상생활 중	73.6%	남 < 여	-	중 < 고
	2주 이상	24.2%	남 < 여	-	-
자아 존중감 ⁵⁾	가치있는 사람	85.0%	-	-	-
	좋은 성품을 가짐	83.6%	-	-	중 < 고
	자신에 만족	76.8%	남 > 여	-	중 < 고
흡연 및 음주 ²⁾	흡연	6.3%	남 > 여	-	중 < 고
	음주	12.5%	남 > 여	덕양구>서구>동구	중 < 고

1) 문항의 평균값 및 집단 간 평균값 비교 결과

2)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가급적 먹는다’ 또는 ‘항상 먹는다’ 고 응답한 비율

4) ‘가끔 경험했다’ 또는 ‘자주 경험했다’ 고 응답한 비율

5)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 고 응답한 비율

활동과 여가 영역은 청소년활동 경험, 청소년 단체활동 경험, 청소년시설 이용 경험, 여가 시간, 아르바이트 경험, 스마트폰 이용 경험 등과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선 청소년활동 경험은 전국 청소년들의 경우보다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고, 과학정보활동 참여 경험은 남학생들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나, 문화예술활동, 자원봉사활동, 직업진로활동, 자기계발활동은 여학생들의 참여 경험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고등학생보다는 중학생들의 활동 참여 경험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으나, 활동 참여 만족도는 고등학생의 경우가 더 높게 나타났다.

<표 112> 활동과 여가 영역 결과 요약

구 분		고양시	성별	지역별	학교급
청소년 활동 경험 ¹⁾	문화예술활동	68.8%	남 < 여	-	중 > 고
	과학정보활동	24.8%	남 > 여	덕양구>동구>서구	-
	모험개척활동	25.5%	-	-	-

구 분		고양시	성별	지역별	학교급
	자원봉사활동	54.7%	남 < 여	-	중 > 고
	직업진로활동	66.5%	남 < 여	동구>서구>덕양구	중 > 고
	국제교류활동	7.1%	-	-	-
	건강보전활동	39.2%	-	동구>덕양구>서구	-
	자기계발활동	22.6%	남 < 여	-	-
	환경보존활동	19.6%	-	-	중 > 고
	참여 만족도 ²⁾	63.5%	-	-	중 < 고
청소년 단체활동 경험 ¹⁾	청소년단체	32.6%	남 < 여	-	중 < 고
	사이버단체	28.5%	남 < 여	-	-
	기타	24.7%	-	-	-
청소년 시설이용 경험 ¹⁾	청소년수련시설	37.9%	-	동구>서구>덕양구	중 < 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7.3%	-	-	-
	청소년카페	27.2%	남 < 여	덕양구>서구>동구	중 < 고
	공공도서관	72.5%	남 < 여	-	중 < 고
	공연시설	86.9%	남 < 여	-	-
평일 여가시간 ³⁾		54.8%	-	-	-
생애 아르바이트 경험 ¹⁾		17.9%	-	-	중 < 고
최근 1년간 아르바이트 경험 ¹⁾		65.2%	-	서구>덕양구>동구	중 < 고
아르바이트 부당노동 행위 ¹⁾	임금 관련	12.4%	-	서구, 덕양구>동구	중 < 고
	초과근무 임금 미지급	12.9%	-	-	중 < 고
	다른 일을 시킴	10.5%	-	-	-
	다친 적이 있음	24.0%	-	서구>덕양구>동구	중 < 고
	폭언 등을 당함	11.3%	-	서구, 덕양구>동구	중 < 고
	구타나 폭행 당함	4.9%	-	덕양구>서구>동구	-
	성희롱·성폭력 당함	4.9%	-	덕양구>서구>동구	-
	손해배상청구 당함	5.7%	-	덕양구>서구>동구	-
스마트폰 이용 ¹⁾		95.5%	남 < 여	-	-
스마트폰 의존 ⁴⁾	시간 줄이기 실패	40.6%	남 < 여	-	중 < 고
	이용시간 조절 어려움	41.1%	남 < 여	-	중 < 고
	이용시간 지키기 어려움	42.6%	남 < 여	서구>덕양구>동구	중 < 고
	다른 일에 집중 어려움	43.0%	남 < 여	-	중 < 고
	스마트폰 생각	13.6%	-	-	-
	이용 충동	22.6%	-	-	-
	건강문제 발생	10.8%	-	-	-

구 분		고양시	성별	지역별	학교급
	가족과 다툼	21.7%	남 < 여	동구>서구>덕양구	-
	사회적 관계에서 갈등 경험	5.6%	-	-	-
	학업수행의 어려움	24.2%	남 < 여	-	중 < 고

- 1)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2) 긍정응답(만족 + 매우 만족) 비율
 3) 2시간 이상으로 응답한 비율
 4) 긍정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비율

세 번째로 가정생활 영역은 부모님과 활동, 부모님과 관계, 가정생활만족도, 가족관 및 사교육 경험과 관련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고양시 청소년들이 다양한 분야에 걸쳐 부모님과 대화하는 정도는 전국 단위 조사 결과에 비해 비교적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비율이 높았으며, 중학생들의 경우에는 부모님과 활동을 같이하는 비율이 고등학생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13〉 가정생활 영역 결과 요약

구 분		고양시	성별	지역별	학교급
부모님과의 활동 ¹⁾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40.0%	남 < 여	-	중 < 고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64.9%	남 < 여	-	-
	책 등에 대한 대화	53.4%	남 < 여	-	-
	정치사회에 대한 대화	31.5%	남 < 여	덕양구>서구>동구	중 < 고
	여가활동	52.2%	-	-	중 > 고
	저녁 식사	84.1%	-	-	중 > 고
부모님과의 관계 ²⁾	아버지와 함께 한 시간	38.8%	-	-	-
	어머니와 함께 한 시간	61.0%	남 < 여	-	-
	늦게 들어와도 관심없음	8.6%	남 > 여	-	-
	아파도 내버려 둔 적 있음	3.6%	-	-	-
가정 생활만족도 ³⁾		89.6%	-	-	-
가족관 ⁴⁾	결혼은 해야 함	45.0%	남 > 여	-	중 > 고
	결혼 후 자녀 키울 필요는 없음	64.8%	남 < 여	-	중 < 고
	맞벌이 시 가사분담은 당연함	89.3%	남 < 여	-	중 < 고
사교육 경험 ⁵⁾		85.4%	-	-	중 > 고

- 1) 주 1회 이상 응답 비율
 2) 1시간 이상 응답 비율
 3) 긍정응답(만족 + 매우 만족) 비율
 4) 긍정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비율
 5)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가족관과 관련하여 흥미로운 사실은 남학생들의 경우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여학생들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결혼 후 자녀를 갖는 것과 맞벌이를 하는 경우 가사를 분담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으며,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성평등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친구 및 학교생활 영역은 학교생활만족도, 학교폭력 피해경험, 인권교육 경험, 인권에 대한 태도, 교우관계, 교사관계 및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 노출 정도 등에 관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운지에 대한 문항에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80%에 가까운 결과를 보임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은 전반적으로 학교생활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폭력 피해 경험의 경우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경험한 비율은 다른 학교폭력 피해 경험에 비추어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였으며, 여학생보다는 남학생들이, 고등학생들 보다는 중학생들 사이에서 피해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남으로써 교우관계에서의 언어 사용 등에 대한 집중적인 개입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인권교육의 경우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났으나, 교육의 효과에 대한 평가에서는 중학생들이 보다 긍정적으로 응답함으로써 인권교육은 가능한 이른 시기에 진행하는 것이 교육적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114> 친구 및 학교생활 영역 결과 요약

구 분		고양시	성별	지역별	학교급
학교생활 만족도 ¹⁾	수업시간이 재미있음	57.3	남 < 여	-	-
	학생의견을 잘 반영함	49.0	-	덕양구>동구>서구	-
	공부하기 좋은 분위기	41.1	남 > 여	-	-
	교칙이 엄격함	33.6	-	덕양구>서구>동구	중 > 고
	학교생활이 만족스러움	78.7	-	서구>동구>덕양구	-
학교폭력 피해경험 ²⁾	심한 욕설이나 모욕	22.6	남 > 여	-	중 > 고
	폭행이나 구타	4.3	남 > 여	-	중 > 고
	따돌림	5.8	-	-	중 > 고
	돈·물건을 빼앗김	2.9	-	-	-
	협박 당함	3.0	-	-	-
	성적인 희롱이나 추행	6.8	-	-	-
	강제적인 심부름	1.9	-	-	-

구 분		고양시	성별	지역별	학교급
인권교육	경험 있음 ²⁾	35.5	-	덕양구>서구>동구	중 < 고
	도움 정도 ³⁾	63.1	-	-	중 > 고
인권 태도 ¹⁾	성인의 생각을 따라야 함	23.6	-	-	-
	사회참여 필요	87.2	남 < 여	-	중 < 고
	모임이 문제해결에 도움	77.8	남 < 여	-	-
	의견 표현 권리	94.4	남 < 여	-	-
	가정환경에 따른 차별 반대	95.4	남 < 여	-	-
	남녀 평등 권리	94.6	남 < 여	-	-
	외국인 교육기회	92.8	남 < 여	-	-
교우관계 ¹⁾	보살핌 받음을 느낌	88.6	남 < 여	-	중 < 고
	고민을 들어줄 것임	90.3	남 < 여	-	중 < 고
	의지할 수 있음	85.8	남 < 여	-	중 < 고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줌	81.5	남 < 여	-	중 < 고
	격려와 용서해 줄 것임	88.8	남 < 여	-	중 < 고
교사관계 ¹⁾	보살핌 받음을 느낌	71.2	-	덕양구>동구>서구	중 < 고
	고민을 들어줄 것임	78.4	-	덕양구>동구>서구	중 < 고
	의지할 수 있음	60.7	남 > 여	덕양구>동구>서구	중 < 고
	관심을 갖고 걱정해 줌	61.1	남 > 여	덕양구>동구>서구	중 < 고
	격려와 용서해 줄 것임	76.9	-	덕양구>동구>서구	중 < 고
유해업소 노출 ⁴⁾	등하굣길	47.4	-	서구>동구>덕양구	-
	집주변	53.1	-	서구>동구>덕양구	-

1) 긍정 응답(그런 편이다 + 매우 그렇다) 비율

2) 해당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

3) 긍정 응답(도움이 되는 편이다 + 매우 도움이 된다) 비율

4) 긍정 응답(조금 있다 + 매우 많다) 비율

인권에 대한 태도와 관련한 문항의 응답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각 인권 관련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반응한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의 인권에 대한 가치는 비교적 긍정적인 수준임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인권과 관련한 문항에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남학생들보다는 여학생들에게서 높게 나타났으며, 학교급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교우 및 교사와의 관계에 대한 문항에서도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비교적 높게 나타남으로써 고양시 청소년들의 교우관계나 교사관계는 평균적으로 볼 때 바람직한 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교우관계에서는 모두 남학생보다는 여학생들이, 교사와의 관계에서는 중학생들보다는 고등학생들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성별 및 학교급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한 가지 특기할 것은 교사관계에 있어 지역별로 덕양구, 동구, 서구의 순으로 긍정적으로 응답한 비율이 높게 나타남으로써 지역에 따른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에 대한 노출 정도에 대한 문항에서도 서구, 동구, 덕양구의 순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들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본 조사의 경우 지역별로 특정 학교를 선정하여 조사를 진행하였기 때문에 여기에 나타나는 지역별 차이는 오히려 학교 간의 차이나 특정 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보다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는 향후 조사 대상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보다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활용한다면, 지역별 차이에 대한 보다 정확한 해석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제 4 장 결론

본 연구는 고양시 청소년과 관련한 통계를 구축하기 위한 작업으로 진행되었다. 고양시청소년재단에서는 고양시 청소년 관련 업무의 핵심 과제 가운데 하나로 고양시의 청소년과 관련한 각종 자료들을 수집하여 통합·관리함으로써 청소년과 관련한 업무에 종사하는 청소년지도자는 물론 지방자치단체나 지방의회에서 청소년 정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작업을 진행하여 왔다. 이러한 작업의 일환으로 고양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양상을 확인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이를 위해 고양시 청소년들과 관련한 일반적인 현황과 더불어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일상생활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특히 고양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양시에 소재하고 있는 중학교 및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편의표집 방식을 사용하여 선정한 후, 건강 및 정서, 활동 및 여가, 가정생활, 친구 및 학교생활 등과 관련한 문항을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고, 1,387명의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논의하였다.

여기서는 앞서 논의한 분석 결과를 반복하기 보다는 향후 고양시 청소년통계 체계를 구축하고 활용하기 위해 지향하여야 할 사안들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지표와 마찬가지로 고양시 청소년통계는 행정자료를 중심으로 하는 객관지표와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되는 주관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고양시 청소년통계가 유의미한 수준에서 활용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전제조건은 각각의 통계자료가 고양시는 물론이고 고양시 내의 3개 구(區) 수준에서 집계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태조사를 통해 수집하는 주관지표의 경우 본 연구에서와 같이 고양시에 거주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경우 구(區) 수준에서 자료를 집계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작업은 아니다. 그러나 주로 행정자료를 통해 수집되는 객관지표의 경우에는 본 통계를 작성하는 고양시청소년재단의 노력만으로는 관련 자료를 적절히 수집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고양시 내의 3개 구(區)별로 신뢰성 있고 정확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고양시청은 물론 고양시 내의 3개 구청의 관련 부서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렇게 수집된 자료를 통해 구축된 고양시 청소년통계가 청소년 현장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소년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여지가 매우 높으므로, 민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다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객관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보다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과 관련한 객관지표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고양시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살펴보기 위한 실태조사의 조사 대상 선정과 관련하여 가능한 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본 조사에서는 고양시 중·고등학교 설치 현황 및 학생 수를 토대로 가능한 고양시 청소년들 대표할 수 있는 방안을 설정하고자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자료를 수집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조사 대상에 포함된 학교의 수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고, 이로 인해 조사 결과의 대표성과 관련하여 일정 부분 한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에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최대한 확률표집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 대상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에는 표본 설계 및 현장 실사 과정이 현재의 방법과 비교해 볼 때 더 복잡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사비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로 조사 대상과 관련하여 현재는 학교를 중심으로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기 때문에, 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않은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조사에 배제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따라서 이들을 조사에 포함할 것인지, 만일 포함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포함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

네 번째로 향후 고양시 청소년의 일상생활에 대한 실태조사를 몇 년 주기로 시행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이 매년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이 존재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여성가족부가 실시하는 청소년종합실태조사도 현재까지는 3년 주기로 실시되어 왔으며, 향후에는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와 더불어 2년 간격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따라서 고양시 청소년의 일상생활 실태조사의 조사 주기도 2년 내지는 3년의 간격을 두고 시행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정한 조사 주기를 설정하여 반복되는 실태조사에서는 조사 문항을 변경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왜냐하면 조사문항을 변경할 경우 이전 조사와의 비교가능성이 사라지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전 조사와 동일한 문항을 사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목적 가운데 하나가 현장에서 일하는 청소년지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므로, 이를 위해 어떤 문항을 조사에 포함할 것인지를 개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계열 비교가능성을 유지하는 것보다 현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조사 문항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청소년들과 직접적인 접촉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

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통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다. 특히 이러한 정보는 국가나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수집된 정보보다는 실제 청소년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수준에서 수집된 정보일 때 활용 가치가 더 높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기초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청소년의 일상생활을 살펴봄으로써 지역적 특성의 맥락을 반영한 조사 결과를 통해 청소년 현장에 도움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가 향후 지향하여야 하는 방향에 대한 논의를 제공하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다음 조사에서는 보다 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 김영지·유설희·이민희·김진호. 2016.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 연구 VI: 총괄보고서.
연구보고 16-R11.
- 류석상·남길우·엄나래. 2016. 2016년 인터넷 과의존 실태조사. 미래창조과학부·한국
정보화진흥원. NIA V-RER-C-16026
- 성윤숙·홍성효(2015).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개발 및 조성사업 연구Ⅲ: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사회 지표 개발 및 진단. 연구보고 15-R12-2
- 여성가족부. 2017년 청소년종합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
- 여성가족부. 2016년 청소년백서
- 이종원·모상현·강현철·정윤미·한지형. 2016. 한국 아동·청소년패널조사 VII: 사업보고서.
연구보고 16-R17
-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http://kess.kedi.re.kr/index>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http://www.mois.go.kr/frt/sub/a05/totStat/screen.do>



2017년 고양시 청소년 일상생활 실태조사

인 사 말 씀

고양시 청소년재단에서는 고양시에 거주하고 있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 실태를 파악하여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수립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응답해 주신 소중한 자료는 고양시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되오니,
잠시 시간을 내어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답해 주신 내용은 무기명으로(이름을 밝히지 않고) 처리되어 절대로 다른 사람 혹은 학교에
공개되지 않고 연구자료로만 활용되므로 비밀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정확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설문에 솔직하고 성실하게 응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에 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 이 조사에서 수집된 자료는 통계법 제33조(비밀의 보호)에 의거 비밀이 엄격히 보호되며,
통계목적 이외의 사용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조사 관련 문의 : 고양시청소년재단 은정규 T.031-810-4006

1.건강 및 정서

주관적 안녕감

1-1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합니까?

전혀 행복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행복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2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였습니까?

전혀 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많이 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3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였습니까?

전혀 우울하지 않았다					보통					매우 우울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4 요즘 자신의 삶(생활)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					매우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1-5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까?

*학생의 경우, 일어난 학교생활, 숙제, 공부 등을 말합니다.

전혀 가치 없다					보통					매우 가치 있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수면

2 평소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일어나니까?(방학 외의 기간을 기준으로 기입합니다.)

문항	주중(월~금)				주말(토~일)			
1) 잠자는 시간	약			시 분	약			시 분
2) 일어나는 시간	약			시 분	약			시 분

운동

3 지난 1주일 동안 운동(정기적으로 배우는 운동 포함)이나 야외 신체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까?

※활동시간에는 학교에서의 운동이 포함됩니다.

1) 예(있다)

2) 아니오(없다) ▶ **4** 로 이동

3-1 활동시간은 얼마나 됩니까?

시간

※예) 1시간 25분은 1시간, 1시간 40분은 2시간으로 작성(사자오입)

식습관

4 하루 식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침, 점심, 저녁에 대해 각각 응답 바랍니다.

※식사대용으로 빵, 설탕 또는 미숫가루, 죽, 시리얼 등을 먹은 경우도 식사에 포함됩니다.

구 분	전혀 먹지 않는다	먹지 않는 편이다	가끔씩 먹는 편이다	항상 먹는다
1) 아침	①	②	③	④
2) 점심	①	②	③	④
3) 저녁	①	②	③	④

스트레스

5 최근 1년 동안 다음 내용에 대하여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스트레스란 '주변 사람이나 일 때문에 힘이 들고 어려운 느낌'을 말합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다	한두 번 경험했다	가끔 경험했다	자주 경험했다
1) 일상생활 중에 스트레스를 느낀다	①	②	③	④
2) 연속적으로 2주 이상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슬프거나 절망감을 느낀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정서

6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해 자신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2) 좋은 성품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①	②	③	④
3) 내 자신에 대하여 대체로 만족한다	①	②	③	④

흡연 및 음주 경험

7 최근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일들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번이나 있습니까?

※ 아래 1)담배 피우기에서 지난 일 년 동안 몇 번 피워 본 정도의 수준이면 "최근 1년 동안 _____회"에 횟수를 쓰고, 습관적으로 매일 피우는 학생은 "하루에 _____회"에 횟수를 써 주십시오.

※ 아래 2)술 마시기에서 지난 일 년 동안 몇 번 마셔 본 정도의 수준이면 "최근 1년 동안 _____회"에 횟수를 쓰고, 주기적으로 자주 마시는 학생은 "한 달 평균 _____회"에 횟수를 써 주십시오.

구 분	경험 여부	경험이 있다면, 그 횟수를 써 주십시오.
1) 담배 피우기	① 있다 ▶	최근 1년 동안 _____회 또는 하루에 _____회
	② 없다	X
2) 술 마시기 (제사나 성찬식 등에서 한 모금 정도 마시는 경우는 제외함)	① 있다 ▶	최근 1년 동안 _____회 또는 한 달 평균 _____회
	② 없다	X

2.활동 및 여가

청소년 활동 경험

8 최근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활동에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구 분	없다	있다	횟수
1) 문화/예술 관련 활동(공연 감상 등)	①	②	회
2) 과학/정보 관련 활동(경진 대회, 과학 실험 등)	①	②	회
3) 모험/개척 관련 활동(탐사·등반, 야영 등)	①	②	회
4) 자원봉사 활동(일손 돕기, 자선 구호 등)	①	②	회
5) 직업/진로 관련 활동(직업 체험, 진로 탐색 등)	①	②	회
6) 국제 교류 활동(프로그램을 통해 진행된 해외 교류 등)	①	②	회
7) 건강/보건 관련 활동(산체단련, 안전 응급처치 등)	①	②	회
8) 자기(인성)개발 관련 활동(자기표현, 마음 수련 등)	①	②	회
9) 환경 보존 관련 활동(생태, 숲, 체험, 환경 살리기 등)	①	②	회

8 에서 하나라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경우, 8-1 ~ 8-2 에 응답해 주십시오.

8-1 위 활동에 어떻게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해당되는 모든 것에 표시해 주십시오.

- | | |
|---------------------------------|----------------------------|
| ① 친구 또는 선생님의 권유로 | ② 부모님 및 가족의 권유로 |
| ③ 학교 선생님의 권유로 | ④ 청소년 시설 및 단체 지도자 선생님의 권유로 |
| ⑤ 홍보 및 게시판 광고를 통한 정보를 통하여 자발적으로 | ⑥ 인터넷 상의 정보를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
| ⑦ 기타(적어주십시오 :) | |

8-2 위 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어떠합니까?

- | | |
|---------------|---------------|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
| ③ 보통이다 | ④ 만족하는 편이다 |
| ⑤ 매우 만족한다 | |

8-3 경험 여부와 상관없이, 위 9가지 활동 중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을 순서대로 두 가지만 선택해 주십시오.

1순위

2순위

청소년 단체활동 경험

9 현재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단체 또는 동아리가 있습니까? 있다면 몇 개입니까?

구 분	없다	있다	횟수
1) 청소년 단체나 동아리(스카우트, 누리단·한별단, 해양소년단 등) ※학교 등 공식 기관의 단체 포함(종교 단체 제외)	①	①	회
2)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 단체나 동아리(예, 인터넷 카페 등)	①	①	회
3) 기타 단체나 동아리(종교 단체 포함)	①	①	회

10 최근 1년 동안 아래와 같은 시설을 이용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회입니까?

구 분	한번도 없음	일 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 청소년수련관(청소년센터 등),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원 등	①	②	③	④
2) 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②	③	④
3) 청소년 카페	①	②	③	④
4) 공공도서관(단, 학교 도서관은 제외)	①	②	③	④
5) 공연 시설(공연장, 영화상영관 등)	①	②	③	④

11 학교에 가는 날(평일) 학생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여가시간은 하루에 보통 몇 시간 정도입니까?

- | | |
|-------------------|-------------------|
| ① 1시간 미만 | ② 1시간 이상 ~ 2시간 미만 |
| ③ 2시간 이상 ~ 3시간 미만 | ④ 3시간 이상 ~ 4시간 미만 |
| ⑤ 4시간 이상 ~ 5시간 미만 | ⑥ 5시간 이상 |

아르바이트 경험

12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아니오(없다) ▶ 13 번으로 이동

2) 예(있다) 12-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를 해 본 경험이 있습니까?

① 예(있다) ② 아니오(없다)

12-2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 중 다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없었다	한두번	여러번
1) 고용주로부터 일을 하고 나서 임금을 받지 못하거나 약속보다 적게 받았다	①	①	②
2) 고용주는 초과근무 및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①	①	②
3) 고용주는 처음 하기로 한 일과 전혀 다른 일을 시켰다	①	①	②
4) 나는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다친 적이 있다	①	①	②
5) 고용주로부터 폭언 등 인격모독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6) 고용주로부터 구타나 폭행을 당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7) 고용주로부터 성희롱이나 성폭력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①	②
8) 고용주로부터 부당한 손해배상 청구를 요구받은 적이 있다.	①	①	②

스마트폰 이용

13 귀하는 스마트폰을 사용하나요?

1) 사용한다 ▶ 13-1 번으로 이동 2) 사용하지 않는다 ▶ 14 번으로 이동

13-1 최근 1년 동안 아르바이트 중 다음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줄이려 할 때마다 실패한다.	①	②	③	④
2)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3) 적절한 스마트폰 이용시간을 지키는 것이 어렵다.	①	②	③	④
4) 스마트폰이 옆에 있으면 다른 일에 집중하기 어렵다.	①	②	③	④
5) 스마트폰 생각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는다.	①	②	③	④
6) 스마트폰을 이용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낀다.	①	②	③	④
7)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건강에 문제가 생긴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8)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가족과 심하게 다툰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9) 스마트폰 이용 때문에 친구 혹은 동료, 사회적 관계에서 심한 갈등을 경험한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10) 스마트폰 때문에 학업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	①	②	③	④

3.가정생활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활동

14 최근 1년 동안 다음과 같은 활동을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한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구 분	거의 하지 않는다	월 1~3회	주 1~3회	주 4~6회	매일 한다	해당 없음
1) 나의 고민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2) 학교생활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⑨
3) 책, 텔레비전, 영화에 대한 대화	①	②	③	④	⑤	
4) 정치, 사회적 주제에 관한 대화(선거 등)	①	②	③	④	⑤	
5) 여가 활동	①	②	③	④	⑤	
6) 저녁 식사	①	②	③	④	⑤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15 주중에 매일 부모님(또는 양육자)과 함께 얼마나 시간(대화 시간 포함)을 보냅니까?

※ 함께한 시간을 기준으로 표시합니다.

구 분	전혀 하지 않는다	30분 미만	1시간 미만	2시간 미만	2시간 이상	해당 없음
1) 아버지	①	②	③	④	⑤	⑨
2) 어머니	①	②	③	④	⑤	⑨
3) 양육자 ※ 위 1), 2)에서 모두 '해당 없음'인 경우만 응답	①	②	③	④	⑤	

16 부모님(또는 양육자)은 어느 정도 관심을 가지고 돌보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해당 없음
1) 학교 수업(학원 포함)이 끝난 후 집에 늦게 들어와도 관심이 없다	①	②	③	④	⑨
2) 내가 고열이 나거나 아파도 그냥 내버려 둔 적이 있다	①	②	③	④	

가정생활 만족도

17 부모님(또는 양육자)과의 관계, 형제·자매와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현재 가정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합니까?

- ①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② 만족하지 않는 편이다
③ 만족하는 편이다 ④ 매우 만족한다

가족관

18 다음의 각 문항들을 잘 읽고 자신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는 칸의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결혼은 반드시 해야 한다	①	②	③	④
2) 결혼을 하더라도 반드시 아이를 가질 필요는 없다	①	②	③	④
3) 결혼을 해서 맞벌이를 하는 경우, 공동으로 가사를 분담하는 것은 당연하다	①	②	③	④

가족관

19 최근 1년 동안 학원을 다니거나 과외 수업, 학습지 과외 등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일주일에 총 몇 시간입니까?

- 1) 예(있다)
2) 아니오(없다) ▶ 20 번으로 이동

19-1 학원 또는 과외 일주일 총시간

일주일 총 시간

※예) 소수점 이하는 없애고 기입합니다.

4.친구 및 학교생활

학교생활 만족도

20 학교에 대한 느낌은 어떠하다고 생각합니까?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나는 수업 시간이 재미있다	①	②	③	④
2) 우리 학교는 우리들의 의견을 잘 반영한다	①	②	③	④
3) 우리 학교는 공부하기에 좋은 분위기다	①	②	③	④
4) 우리 학교는 교칙이 엄격하다	①	②	③	④
5) 선생님, 친구 등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현재 다니고 있는 학교의 생활이 만족스럽다	①	②	③	④

학교 폭력 경험

21 최근 1년 동안 학교 안에서 선후배, 친구들로부터 다음과 같은 일들을 얼마나 자주 경험했습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한번도 없음	일년에 1~2회 정도	한 달에 1~2회 정도	1주일에 1~2회 정도	1주일에 3회 이상
1) 심한 욕설이나 모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2) 폭행이나 구타를 당함	①	②	③	④	⑤
3) 따돌림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4) 돈이나 물건을 빼앗김	①	②	③	④	⑤
5) 협박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6) 성적인 희롱(농림)이나 추행을 당함	①	②	③	④	⑤
7) 강제적인 심부름	①	②	③	④	⑤

인권 교육 경험

22 최근 1년 동안 인권교육을 얼마나 자주 받았습니까?

※ 인권교육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에 관한 교육으로서 인권의 역사, 유엔아동권리협약, 개인 타인의 권리존중, 차별 편견에 대해 교육하는 것을 말합니다

1) 교육받은 적 없음 ▶ **23** 번으로 이동

- 2) 1회
3) 2회
4) 3회
5) 4회
6) 5회 이상

22-1 인권교육은 어디에서 이루어졌는지(받았는지)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해 주십시오.

- ① 사무업무
② PC방, 비디오방, 만화방, 노래방 서빙
③ 식당, 레스토랑, 카페 서빙
④ 옷가게, 편의점 판매원

22-2 그 교육은 얼마나 도움이 되었습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② 도움이 되지 않는 편이다
③ 도움이 되는 편이다
④ 매우 도움이 된다

인권에 대한 태도

23 여러 가지 인권 상황에 관한 다음 의견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각 항목을 잘 읽고 해당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십시오.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청소년은 아직 어려서 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생각에 따라야 한다.	①	②	③	④
2) 청소년도 사회문제나 정치문제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제시하는 등 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	①	②	③	④
3) 청소년의 의견을 대변하는 모임이나 조직 (예: 학생회 등)은 학교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언제나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남자와 여자는 모든 면에서 평등한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7)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다른 민족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과 똑같은 교육기회를 가져야 한다.	①	②	③	④

교우관계

24 다음은 여러분의 친구들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교사와의 관계

25 다음은 여러분의 학교 선생님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가장 가까운 것에 표시해 주세요.

구 분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내가 사랑과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①	②	③	④
2) 내가 고민되는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3) 내가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다.	①	②	③	④
4) 항상 나의 일에 관심을 갖고 격려해준다.	①	②	③	④
5) 가정형편이 어렵다고 차별해서는 안 된다.	①	②	③	④
6) 내가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망설일 때에 격려해주고 용서해 줄 것이다.	①	②	③	④

생활환경에서의 유해업소 노출

26 등하굣길 또는 집 주변에 PC방, 노래방, 찜질방, 비디오/DVD방, 멀티방, 룸카페, 유흥/단란주점, 클럽 등의 업소들이 얼마나 많다고 느끼나요? 각각 응답해 주세요.

항 목	전혀 없다	거의 없다	조금 있다	매우 많다
1) 등하굣길	①	②	③	④
2) 집 주변	①	②	③	④

5.응답자 특성

성 별

D1 성별은 무엇입니까?

- ① 남자
② 여자

생년·월

D2 실제 생년월은 언제입니까?

- ① 양력 ② 음력

년 월

가족 상황

D3 다음 중 현재 함께 살고 있는 사람들을 모두 선택해 주세요.

- ① 아버지 ② 어머니
③ 형제 또는 자매 ④ (외)할아버지
⑤ (외)할머니 ⑥ 친척
⑦ 친구나 선후배 ⑧ 쉼터, 그룹홈, 위탁가정, 아동양육시설의 식구들
⑨ 나 혼자 산다 ⑩ 기타(구체적으로 적어주세요):

학교급 및 학년

D4 재학하고 있는 학교와 학년에 표시해 주세요.

- ① 중학교 ① 1학년
② 인문계 고등학교 ② 2학년
③ 특성화 고등학교 ③ 3학년

학업성적

D5 학생의 학업성적(2017학년도)은 반에서 대략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하는 수준 ← 보통 → 매우 잘하는 수준

① ② ③ ④ ⑤

가정형편

D6 학생 가정의 형편(경제 수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못산다 ← 보통 → 매우 잘산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 끝까지 성의 있게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